

뇌와 혼체

(계시글 모음)

2013. 10. 11.

선배 가정국

뇌와 혼체

펴 낸 곳 : 선배 가정국 은혜교회

기획 · 편집 : 박 광섭 강도사

편집마감일 : 2013. 10 11

이 책은

성자 주님께서 계시자들에게 하신 계시글에서 발췌하여
편집 정리한 것임을 알립니다.

< 주의할 점 >

위 내용을 참조하시되, 계시글의 출처를 표시해놓았으니,
혹여 부족한 부분은 성자 계시글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거를 이뤄가는 성자 주님의 신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며...

목 차

1. 뇌

1) 腦 (뇌)란? 07

2) 뇌의 역할 07

- ① 사람의 뇌는 듣고, 보고, 행한 대로 모두 기록한다.
- ② 뇌는 담기는 대로 작용한다.
- ③ 뇌의 특징을 알고 사탄은 너희의 뇌를 노려 각종 매체를 조작... 08
- ④ 죄의 근원지는 뇌 곧 마음이다.

3) 뇌는 휴거의 통로다.

- ① 뇌는 육신의 기관 중에 휴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09
- ②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휴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4) 뇌는 대화의 연결 수단, 통합의 수신 창고와 같다.

- ① 뇌 자체의 가장 큰 핵심 비밀은?
- ② 통합 속에 휴거다. 10
- ③ 육을 가진 너희가 성삼위를 사랑으로 만나 교감하는 방법 11
- ④ 성자 주님을 만나는 방법 12
- ⑤ 99%는 개통 불가, 먹통이다 13
- ⑥ 순간순간의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 14
- ⑦ 신령한 신의 생각에 도달하는 방법
- ⑧ 교통과 소통의 근본은 똑같은 것이다. 15

5) 선생이 잘 안 느껴지고 선생을 잘 모르겠다 하는 자

- ① 뇌에 명령을 하고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면 뇌가 그렇게 변한다.
- ② 선생이 잘 안 느껴지고 선생을 잘 모르겠는 자는 생각하여라.
- ③ 100% 생각했어도 안 되는 이유 ; 뇌가 굳은 것이다.
- ④ 기도가 안 되고 나 성자를 만나기 어려운 자는 ... 16

6) 뇌 일반

- ①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너’ 라는 결과체, 곧 네 뇌다.
- ② 뇌 완성이 혼체의 완성이다.
- ③ 육신이 못하는 것을 뇌로 하라.
- ④ 뇌와 혼체의 상관관계 17
- ⑤ 뇌가 굳어짐은 생각의 굳어짐, 행동의 굳어짐과 같아... 18
- ⑥ 뇌는 ... 반복적이고 학습적인 것에 익숙하여 ...
- ⑦ 말씀을 들은 뇌는 말씀을 들은 뇌로 변화된다.

⑧ 생각을 놀리면 생각을 놀리는 너로 굳는다.

2. 혼체

1) 혼체의 말씀은 나와 통하는 근본의 말씀이니... 19

2) 혼체를 너희에게 밝히는 이유

- ① 혼으로 매일 사랑하며 누리고 살라고 함이다.
- ② 온전하게 휴거시키려 함이다.
- ③ 너희 육과 영이 더 빨리 변화하라 함이다.
- ④ 네가 내(=성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나 성자의 사랑이다.
- ⑤ 재림의 때에 나(=성자)를 깨닫고 알게 하려 함이다. 20
- ⑥ 혼체를 통해 선생을 만나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3) 혼체(=정신체)

- ① ‘혼’ 이 아니고 ‘혼체’ 임을 밝힌다.
- ② 혼체란?(혼체의 개념)
- ③ 육과 혼체와 영의 명령체계 22
- ④ 혼체의 특성 23
- ⑤ 혼체의 중요성

4) 혼과의 대화

- ① 혼과의 대화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의 대화다. 24
- ② 기도는 대화다. 정신 나눔이다. 나의 정신을 받는 것이다.

5) 선생과 만남, 대화, 소통

- ① 선생을 만나야 휴거된다.
- ② 월명동에서 만나자 25
- ③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27
- ④ 편지는 육적 소통, 혼체는 혼적 소통, 기도는 영적 소통이다. 28

6) 혼체를 활동하게 하는 방법

- ① 혼체를 온전히 알아야 혼체를 움직일 수 있다. 29
- ② 육은 육계에서, 영은 영계에서, 혼은 혼계에서 활동한다.
- ③ 혼체 사용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과 진리의 성령, 그 핵심 분체이다. 30
- ④ 혼체의 발동 30
- ⑤ 낮에 혼의 활동 32
- ⑥ 잘 때 혼계에서의 혼체의 활동
- ⑦ 기도할 때, 혼체를 활동하게 하는 방법(=혼체 사용하는 법) 33

7) 혼체 세계에 더 빨리 쉽게 들어가는 방법

- ① 사람마다 개성으로 발달된 세계가 다르기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35
- ② 끊임없이 집중, 네 기도에 빠지지 말며 나의 소리에 집중하여라.

8) 100선 혼체, 200선 혼체, 300선 혼체의 설명

- ① 혼체를 통해 네 자신을 보고 점검해야 더 깊은 단계에 오른다. 36
- ② 휴거 차원의 올라감이 쉽지 않은 이유...
- ③ 100선 휴거에 오른 자
- ④ 200선 휴거에 오른 자

9) 마음 상태를 통해 나타나는 혼체를 볼 수 있는 단계 38

10) 혼체 세계

- ① 혼체의 세계는 깨달음으로 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세계다. 41
- ② 혼체의 세계는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면 접할 수 있는 세계다.
- ③ 혼체는 영에 속한 혼체와 육에 속한 혼체로 쪼갤 수 있다.
- ④ 지상 영계와 혼체 세계는 동일한 세계인가요? 42

11) 혼적 세계

- ① 혼적단계란? 43
- ② 혼적세계도 몇 십만 층의 단계가 존재한다.
- ③ 혼적단계는 두 가지의 단계로 나뉜다.
- ⑤ 자신의 혼체의 수준만큼 혼적세계에서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
- ⑥ 혼적 세계에서 보면 네 정신적 수준과 행함의 수준이 ...
- ⑦ 혼적 세계에서 성자도 선생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

12) 혼체 성장(=형성)

- ①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혼체를 발달시켜야 한다.
- ② 혼체를 온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5
- ③ 혼체가 형성되기 좋은 때 47
- ④ 혼체 형성에 쉽게 이르는 방법 48

13) 혼체는 무엇으로 보는 걸까요?

- ① 육신이 눈을 감아도 육신에 속한 정신으로 네 혼체를 봄이 맞다. 49
- ② 혼체를 보려면 육신을 잘 살펴보아라.

14) 잠을 잘 때 혼체가 육과 분리된다. 50

15) 혼체를 사용하여 전도하여 생명을 관리하라.

- ① 생명을 24시간 관리하려면 혼체를 강하게 힘 있게... 51
- ② 마음·생각·혼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 52
- ③ 지금은 영적인 시대다... 53

16) 혼체 일반

- ① 육보다 보이지 않는 영, 혼, 마음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혼체는 육체의 행위를 온전하게 주관할 수 있다. **55**
- ③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혼체를 이용해서 점검해 보아라.
- ④ 육신이 기도하면 혼체가 환상을 볼 수 있으며,... **56**
- ⑤ 혼체로서 할 수 있는 영계체험
- ⑥ ...기도는 열심히 하나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57**
- ⑦ 상징체와 혼체의 차이는 무엇일까?
- ⑧ 혼체와 일체되는 법 **58**
- ⑨ ‘꿈의 목적’ 따라 다양한 혼체의 모습이 보인다. **59**
- ⑩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 혼체가 네 육을 다스린다. **60**
- ⑪ 낮에는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밤에는 꿈에서 혼체로 만나는 것이다.
- ⑫ 시대 말씀을 모르는 혼체는 힘이 없고, 형성되어도 뚜렷하지 못하다.

17) 영체

- ① 영의 형성 **61**
- ② ...어느 누구든 영체를 보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 ③ 혼체와 영체의 특성 **62**
- ④ 육체, 혼체, 영체의 형성
- ⑤ 육체, 혼체, 영체의 성장

참조 계시글 64

1. 뇌

1) 腦 (뇌)란?

① 뇌는 영으로 본다면 생각으로 일하는 기관이다. (20130816 뇌를 최대한 써라 - 황인선)

② 뇌는 육으로 보면 각종 자극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육신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20130816 뇌를 최대한 써라 - 황인선)

2) 뇌의 역할

① 사람의 뇌는 듣고, 보고, 행한 대로 모두 기록한다.

◇ 사람의 뇌는 듣고, 보고, 행한 대로 모두 기록한다. 그것이 특징이다. 자기가 좋든지, 싫든지 일단 기록한다. 고로 너희의 뇌는 네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강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되며, 인생이 되고 삶이 된다. (20130808 뇌에 기록된 이미지, 트라우마 - 정별해)

◇ 뇌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한 모든 것이 뇌 안에 저장된다. 저장된 것들이 뇌 안에서 세포 뉴런들의 생각의 작용으로 서로 교통을 하거나 충돌을 하면, 그것이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행실의 결과로 인해 휴거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결정되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보고 듣고 말함이 뇌 안에 깊이 저장되니 이 또한 하늘의 창조 법칙의 결과물이다. 하늘 세계에서조차 마치 뇌와 같이 인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와 사연들이 하늘 세계에 저장되고 기록된다. 이는 인간의 뇌는 천국의 기능을 본 떠 만든 것과 같으니 그 아무리 다재다능한 자라도 인간의 뇌를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 함은 맞는 이치이며, 뇌도 개발하는 대로 무한한 잠재 능력이 발생되어 나타나니, 천국은 무한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을 쓰는 자가 개발하는 것에 따라 그 모양도 위치도 환경도 다르다 한 말이 진리임을 나타낸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 고로 너희가 그동안 봐 온 TV, 영화, 드라마 등 모든 것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 네가 잠시 스쳐 지나간 인터넷 기사도 뇌에 기록되어 남았듯이, 모두 그러하다. (20130808 뇌에 기록된 이미지, 트라우마 - 정별해)

② 뇌는 담기는 대로 작용한다.

◇ 뇌는 담기는 대로 작용하는 원리이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 뇌에 천국을 담으면 천국이 되고, 지옥을 담으면 지옥이 된다.

◇ 뇌에 천국을 담으면, 천국이 되고, 지옥을 담으면 지옥이 되고,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 뇌 속에 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며 더 깊이 느끼며 노력하다 보면 선생을 만난 느낌처럼 기분이 좋아지니 뇌는 답는 그릇과 같다.

◇ 뇌 속에 선생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며 더 깊이 느끼려 노력하다 보면 선생을 만난 느낌처럼 기분이 좋아지니 뇌는 답는 그릇과 같다. 그릇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답는 원리이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 뇌의 특징을 알고 사탄은 너희의 뇌를 노려 각종 매체를 조작하고 있으며,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 이 뇌의 특징을 알고 사탄은 너희의 뇌를 노려 각종 매체를 조작하고 있으며,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특히 이미지와 영상은 주입하는 대로 들어간다. 뇌가 충격적으로 기억한다. 움직이는 영상 자체가 뇌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인데,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생각이 안 좋게 변하는 것이다. (20130808 뇌에 기록된 이미지, 트라우마 - 정별해)

㉣ 세상의 영상 매체나 음악들은 뇌로 나 성자를 사랑할 수 있는 영적 파장을 모두 끊어 놓는다.

◇ 세상의 영상 매체나 음악들은 뇌로 나 성자를 사랑할 수 있는 영적 파장을 모두 끊어 놓는다. 뇌로 나 성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영적인 파장이 끊기면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20130808 뇌에 기록된 이미지, 트라우마 - 정별해)

㉤ 기억력과 그 기억을 창작하는 작용이다. 결국 죄의 근원지는 뇌 곧 마음이다.

◇ 여기서 또 하나 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 바로 기억력이요, 그 기억을 창작하는 작용이다. 이는 뇌 속에 입력된 기억들이 모여, 그 기억을 통해 그 다음 단계의 생각들이 펼쳐지는 원리이다. 쉽게 말하자면, 여자를 보고 충동을 느낀 자는 그 다음 단계의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음란물을 접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상상하게 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성 문제의 첫 시발점과 같기에 조심하라고 이 비유를 말해 준 것이다. 특히나 세상은 음란물, 이성의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기에 늘 조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성 문제로 나간 자들도 많기에 특별히 교육하니, 늘 이성을 조심하며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생각을 차단시켜야 한다. 사랑아. 죄의 원리도 같다. 죄가 죄를 낳고 또 낳는다는 원리와 일맥상통하니 결국 죄의 근원지도 뇌 곧 마음이다. 그

래서 마음잡으면 인생 성공한다 함을 그토록 강조하며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을 지키라 한 것이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3) 뇌는 휴거의 통로다.

◇ 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비밀이며 선물이다. 휴거의 통로다. (20130816 뇌를 최대한으로 써라 - 황인선)

① 뇌는 육신의 기관 중에 휴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뇌를 놀게 하지 말아라. (20130816 뇌를 최대한으로 써라 - 황인선)

◇ 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뇌를 놀게 하지 말아라. 지금은 각자가 기적과 표적을 이루어야 한다. ㉠ 이것만은 못 한다고 생각하였던 일을 이루어야 하며 ㉡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 자신이라는 틀을 깨고 관을 부수며 체질을 녹이고 다스려 완전히 부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의 활동을 극치로 올려야 한다. 너희의 육신의 기관 중에 휴거를 담당하는 곳이다. 뇌를 잠시도 쉬게 하지 말아라. (20130816 뇌를 최대한으로 써라 - 황인선)

◇ 지금 이 때(=휴거가 진행 되고 있는 때)는 뇌가 잠자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뇌가 잠잔다 함은 어떤 것이냐.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30816 뇌를 최대한으로 써라 - 황인선)

②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휴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 육신의 기관 중 유일하게 휴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그러니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휴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지 마라, 뇌를 놀리지 마라. (20130816 뇌를 최대한으로 써라 - 황인선)

4) 뇌는 대화의 연결 수단, 통합의 수신 창고와 같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① 뇌 자체의 가장 큰 핵심 비밀은?

; 인간의 뇌 속에는 천국에서만 유일하게 통하는 파장이 주입되어 있다. 그래서 뇌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함으로 모든 교통의 연결 수단이 된다.

◇ 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웅장한 이 뇌 자체의 가장 큰 핵심의 비밀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천국 곧 하늘 삼위의 세계에서만이 유일하게 통하는 파장이 인간의

뇌 속에 주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뇌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함으로 모든 교통의 연결 수단이 되며, 인간의 육체 중에 가장 큰 핵심의 역할을 한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② 통합 속에 휴거다.

㉠ [휴거의 원리] 뇌 안에 100% 나와 선생 담으면 통하게 된다.

◇ 사람들이 통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 휴거의 단계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통합이다. 통하는 것은 너무 쉽다. 원하는 음식을 입안에 넣듯, 뇌 안에 원하는 것을 담으면 된다. 그럼 뇌 안에 너는 누구를 담고 통하고 싶느냐. 대다수 나 성자와 선생이라 하겠지. 그럼 뇌 안에 100% 나와 선생 담으면 된다. 이것이 휴거의 원리이다. 뇌 안에 담은 대로 파장들이 교통하며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뇌 안에 세포들의 파장을 통해 변화를 이루니, 이는 뇌 속에 있는 세포들이 다양하게 보고 들은 것들을 기억함으로 생각들을 모으기 때문이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 선생의 뇌 세포에 모든 신경이 나의 파장과 천국의 파장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와 통하는 것이다. (혼체의 완성됨의 비밀)

◇ 뇌 속에 선생이 중심이 되면, 선생과 통할 것이요, 뇌 속에 나 성자가 중심이 되면 나와 통할 것이요, 선생과 나 성자는 하나이니 통합의 종결판이다. 선생이 나와 통합은 선생 뇌의 세포에 모든 신경이 나의 파장과 천국의 파장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이 혼체의 완성됨의 또 하나의 인봉이다. 결국 혼을 통해 통합의 법칙에는 뇌 안에 담는 것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니 나는 너희 모두가 선생과 같이 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을 닮으라고 그토록 이야기한 것이며, 선생을 제대로 보라고 한 것이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 선생을 너희 뇌에 담을 때,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의 자원도 높아지니 알고 깨닫는 만큼 운명이 결정된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 말씀을 통해 혼이 통합이다. ---- (핵심)

; 말씀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는 말씀이 신이 되매, 전능자가 함께함과 같으니 통하게 된다.

◇ 또 하나의 핵심이 있다. 말씀을 통해 혼이 통합이다. 말씀 속에 나 성자가 임하니 말씀 자체는 나 성자요, 선생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다면 말씀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는 말씀이 신이 되매, 전능자가 함께함과 같으니 통하게 된다. 여기서 먼저 말씀을 시인하고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뇌부터 인식을 하고 시인을 하니, 결국 뇌가 움직이며 뇌 안에 말씀 곧 전능자의 신이 들어가니 그 뇌는 곧 전능자의 뇌가 되어, 뇌 안에 세포들이 전능자의 파장을 받음으로 전능자를 맞으니, 이는 천국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원리요, 곧 천국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와, 진짜 대박이에요.) 핵심이다. 핵을 알아야 통한다. 통합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만 생각한다. 꿈을 꾸는 것도, 생각과 정신, 곧 뇌 안에 파장을 통해 일어나, 그 파장들이 혼체와 결합되어 일어나기도 한다. 선생의 영, 혼, 육 모든 숨결이 담긴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선생의 답은 확실하고 간단하고, 명료하며 정확하고 핵을 찌른다. 이를 알고, 모두 뇌를 통해 통하자. 뇌도 모든 지체의 신경과 통하니 그 원리를 생각하며 뜻을 이루어 보자. 사랑한다. 사랑의 성자.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③ 육을 가진 너희가 성삼위를 사랑으로 만나 교감하는 방법

◇ (자체 기도회 때의 계시 말씀 중, 천국에서조차 성삼위를 쉽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무척 아쉽고 서운하며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주 뵙기 위해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었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하니 착잡한 마음이 들어, 이를 두고 기도 시간에 주님께 여쭙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20130606 뇌 사랑이란 영계 파장의 사랑이다. - 이주인)

㉑ **성삼위의 신의 사랑은** (영계의 파장을 통해 너의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너의 마음, 정신, 생각 곧 뇌로 느낄 수 있다.**

◇ 내 사랑, 나의 연인아! 내 사랑을 느끼느냐? (네, 느껴져요.) 어디로 느껴지느냐? (저의 마음, 정신,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곧 뇌로 느껴집니다.) 그래, 맞다. 나의 사랑은 너의 마음, 정신, 생각 곧 뇌로 느낄 수 있다. 즉 성삼위의 신의 사랑은, 영계의 파장을 통해 너의 뇌에 전달된다. 이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다. 고로 선생이 마음, 정신, 생각 곧 뇌가 금단의 열매라 이른 것이다. 즉 성삼위의 사랑은 영계의 파장을 통해, 너희 각인의 뇌에 전달된다. 이는 육을 가진 너희가, 성삼위를 사랑으로 만나 교감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명심하여라! (20130606 뇌 사랑이란 영계 파장의 사랑이다. - 이주인)

㉒ **비움과 집중을 통해** (영파로 전달되는) **성삼위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며 나눌 수 있다.**

◇ 고로 비움과 집중을 통해 영파로 전달되는 성삼위의 사랑을, 너희가 제대로 느껴서 잡아내어 채움으로, 이를 통해 성삼위와 깊고 진정한 사랑을 교감하며 나눌 수 있게 된다. 곧 사랑의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20130606 뇌 사랑이란 영계 파장의 사랑이다. - 이주인)

㉓ **너희 뇌를 깨끗하게 비울 때에 온전한 성삼위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 이런즉 너희는 비워 냄으로써 깨끗한 마음, 정신,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영파를 통한 성삼위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즉 비워낸 너희의 뇌에, 온전한 성삼위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비워 낸 만큼 채워지는 이치이다. 성삼위와 사랑 또한 이와 같다. (20130606 뇌 사랑이란 영계 파장의 사랑이다. - 이주인)

⑤ 너희 뇌(마음, 정신, 생각)를 집중함으로 영계의 파장을 통해 전달되는 성삼위의 사랑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 또한 집중이다! 너희 마음, 정신, 생각을 집중함으로 영계의 파장을 통해 전달되는, 성삼위의 사랑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즉 집중은 영파를 정확히 잡아 내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130606 뇌 사랑이란 영계 파장의 사랑이다. - 이주인)

④ 성자 주님을 만나는 방법

◇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앞에 서 계신지, 뒤돌아 계신지, 저를 어떤 느낌으로 보고 계신지 느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답답한 마음에 “주님, 안 보이는 성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뇌 사랑이다.”하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답답해 하시며 계시하셨습니다.) (20130616 안 보이는 성자와 뇌 사랑이다. 보낸 자 통해 사랑이다. - 정별해)

⑦ 나 성자는 너희의 뇌와 마음으로 만나니, 뇌와 마음을 예리하게 하여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 항상 나 성자에게 맞춰놓아라.

◇ 나 성자는 너희의 뇌, 너희의 마음으로 만나니 뇌와 마음을 예리하게 하여라.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 항상 나 성자에게 맞춰 놓아라. 나 성자는 너희 앞에 절대 일대일의 신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항상 내 주파수는 네게 있음을 알아라. 그러나 네가 내게 맞춰야 서로 통한다. (20130616 안 보이는 성자와 뇌 사랑이다. 보낸 자 통해 사랑이다. - 정별해)

① 성자 앞에 반응을 보여라.

◇ 반응을 보는 성자다. 네가 나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오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기쁨으로 맞이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20130616 안 보이는 성자와 뇌 사랑이다. 보낸 자 통해 사랑이다. - 정별해)

② 항상 준비하여라.

◇ 네가 내 마음 문을 노크할 때, 내가 활짝 열어 주지 않겠느냐. 항상 준비하여라. 이것이 반응이다. (20130616 안 보이는 성자와 뇌 사랑이다. 보낸 자 통해 사랑이다. - 정별해)

③ 성자가 해 주기 전에 무엇을 해 달라며 간구하고, 들떠서 나의 마음을 노크하라.

◇ 나 성자가 너희에게 해 줄 것을 다 해 주고 나서 네가 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성자가 해 주기 전에 무엇을 해 달라며 간구하고, 들떠서 나의 마음을 노크하는 것이 반응

이다. (20130616 안 보이는 성자와 뇌 사랑이다. 보낸 자 통해 사랑이다. - 정별해)

㉔ **내가 먼저 내 마음 문을 노크하여라.**

◇ 내가 네 마음 문을 노크하기 전에 네가 내 마음 문을 노크하는 것이 반응이다.
(20130616 안 보이는 성자와 뇌 사랑이다. 보낸 자 통해 사랑이다. - 정별해)

㉕ **네 뇌가 네 마음이 나 성자의 마음에 오려면 항상 준비하고 갖춰야 한다.**
(20130616 안 보이는 성자와 뇌 사랑이다. 보낸 자 통해 사랑이다. - 정별해)

㉖ **네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이 와 보는 것이다.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 성자의 마음을 견학하러 와라.**

◇ 뇌 사랑, 뇌 과일이다. 나를 어떻게 만나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만났느냐. 뇌다. 마음이다. 정확히 깨달아 알아라. 내 마음 깊은 곳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 성자는 신이다. 인간으로서 신의 마음을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 인간으로서 신의 깊은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네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이 와 보는 것이다. 마치 견학을 한다고 생각하여라. 네가 학교에서 견학할 때 어떠했냐. 들뜬 마음에 도시락도 싸고, 상상도 해 보고 직접 가는 당일에는 비가 올까 걱정하며 견학 가서 배우고, 즐기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나 성자의 마음을 견학하여라.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너라. 내가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 줄 테니 네 마음을 항상 그와 같이 만들어 놓아야 한다. (20130616 안 보이는 성자와 뇌 사랑이다. 보낸 자 통해 사랑이다. - 정별해)

⑤ **99%는 개통 불가, 먹통이다**

㉗ **지금은 너희가 업그레이드되는 기간이다. 즉, 휴거 기간이다.**

◇ 지금은 너희가 업그레이드되는 기간이다. 즉, 휴거 기간이다. 너희 모두가 차원 높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내게 나아오고자 함을 알고 있노라. 하지만 99%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겠다. (20130810 99%는 개통 불가, 먹통이다. - 주소유)

㉘ **뇌가 100% 작용을 해야만 너희의 육신 행실을 개통시킬 수 있다.** (20130810 99%는 개통 불가, 먹통이다. - 주소유)

㉙ **99%의 변화가, 휴거가 얼마나 너희 인생을 좌절하게 하는 것인지 진정 깨달아라.**

◇ 이틀 전 스마트폰 자체 업그레이드를 시킨 후, 갑자기 폰이 먹통이 되어 전화는 물론 그 어떤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휴일 아침부터 그리된지라 하루 종일 답답하게 지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내가 깨달을 것이 있는가 생각했지만 답을 알지 못

했습니다. 다음날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문제를 알아보니 폰 업그레이드가 99%만 되었기에 폰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100%로 업그레이드 시킨 후 곧장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일로 인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나 다시 생각해 보니 휴거가 이와 같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100%가 아니면 개통도 안 되고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99%의 변화가, 휴거가 얼마나 너희 인생을 좌절하게 하는 것인지 진정 깨닫기를 바란다. 아직은 너희가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너에게 깨우쳐 알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1%의 차이가 운명을 좌우한다. 이것을 진정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겨라. (20130810 99%는 개통 불가, 먹통이다. - 주소유)

㉔ **99%변화는 변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다.** (20130810 99%는 개통 불가, 먹통이다. - 주소유)

◇ 전기가 99%만 들어오게 된다면 전기로 인한 그 어떤 작용도 할 수 없게 된다. 오직 100%였을 때만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본 100%가 되어야 개통과 소통이 가능하다. 선풍기에 전기가 100% 들어왔을 때부터 약풍, 강풍, 회전이 가능하듯이 100%가 되었을 때부터 그로 인한 작용이 일어나고 더 차원이 높아지는 단계로 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99%의 전기만 들어오게 된다면 선풍기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지. (20130810 99%는 개통 불가, 먹통이다. - 주소유)

⑥ 순간순간의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

◇ 순간순간의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은 그 순간의 생각으로 생각의 골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의 영역에 그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확대되어 순간의 생각이 네 모든 생각을 좌우하기도 하고, 인생 대부분의 생각을 좌우하기도 한다. 네 선생이 나 성자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생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너희도 무엇을 두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생각하라. 나 성자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선생을 생각하여라.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자들은 육체인 뇌가 보고 듣는 대로 생각이 돌아가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계속적인 세상의 자극을 받게 된다. 그것이 네 뇌에서 24시간 중에 2시간을 차지했다 하자.** 그것보다 나 성자를 생각한 시간, 말씀을 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면 바로 그 생각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끝나지 않고 생각의 골짜기로 아예 들어간다면 더 문제겠지.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⑦ 신령한 신의 생각에 도달하는 방법

; 너희도 영 휴거를 생각하고 너희의 인생 목표를 생각하고, 나 성자, 선생을 생각하여라.

◇ 어떤 자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것에 관한 것만 생각이 나고 집중이 되듯이, 너희도 영 휴거를 생각하고 너희의 인생 목표를 생각하고, 나 성자, 선생을 생각하여라. 그것이

신령한 신의 생각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말씀’이라는 선생 뇌의 결과체가 문서로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 생각 받으려면 그 생각 보면 된다. 그러면 뇌가 생각대로 그려지고 돌아간다. 자신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나 성자의 생각을 받는 위대한 뇌로 만들어라.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⑧ 교통과 소통의 근본은 똑같은 것이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이 바라보기다.

◇ 교통과 소통의 근본은 똑같은 것이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이 바라보기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요, 근본이니 뇌의 가장 큰 파장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창조한 인간의 근본 된 뜻 속에 사탄이 아담 하와도 먼저 생각, 곧 뇌를 건드리며 뇌의 신경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며, 음란한 파장을 보냈으니 넘어갔다. 그래서 그 이후 인간들은 유전자로 인해 결국 이성적인 세포가 더 크게 작용하여, 그 자극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 것이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5) 선생이 잘 안 느껴지고 선생을 잘 모르겠다 하는 자

① 뇌에 명령을 하고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면 뇌가 그렇게 변한다.

◇ 네 말이 맞아. 뇌에 명령을 하고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면 뇌가 그렇게 변한다. 그것은 뇌가 네가 생각으로 명령한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계속 상상하여도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지. 뇌에 그런 그림이 반복됨으로 그것이 강해져 네 뇌는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답은 네 뇌다. 나 성자가 너의 뇌를 보고 그날에 심판한다 하지 않았느냐.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② 선생이 잘 안 느껴지고 선생을 잘 모르겠는 자는 생각하여라.

◇ 선생이 잘 안 느껴지고, 선생을 잘 모르겠는 자는 생각하라. 네가 선생 생각을 안 했기에 선생이 안 느껴지고,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선생 생각을 계속하면, 뇌는 선생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선생을 느끼고 만나는 뇌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③ 100% 생각했어도 안 되는 이유
; 뇌가 굼은 것이다.**

◇ 100퍼센트 생각했어도 안 되는 때가 있다. 아까 네가 ‘자야겠고, 꿈에서 혼체를 사용해야겠다.’ 100퍼센트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했지? 네 인생에서 그것을

생각한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그것을 강하게 생각했어도 뇌가 처음 받아들이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새벽기도를 반드시 해야겠다.’ 생각하고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네 뇌가 그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아서이다. 고로 뇌에서 생각하고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생각은 강하지만, 순간이라는 것이다.

； 하루 24시간 중에 네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10초인지, 자기 전 기도에서만인지, 말씀을 들을 때 순간, 3초인지 생각하라. 생각은 지상의 빛과 같아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 순간 생각은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다. 뇌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니 순간에서 끝나고, 최종적으로 뇌가 생각한 뇌의 그림에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남게 되어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곧 뇌가 굳은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뇌가 굳은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④ 기도가 안 되고 나 성자를 만나기 어려운 자는 먼저는 생각하지 않아서이고, 행하지 않아서이다.

◇ 기도가 안 되고 나 성자를 만나기 어려운 자는 먼저는 생각하지 않아서이고, 행하지 않아서이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을까. 나 성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나 생각하라.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6) 뇌 일반

①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너’ 라는 결과체, 곧 네 뇌다.

◇ 뇌에 대해서 생각하라.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너’ 라는 결과체이며, 곧 네 뇌이다. 지금 너의 모습은 결국 너의 뇌의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② 뇌 완성이 혼체의 완성이다.

◇ 사랑아. 그렇다면 선생이 왜 그토록 뇌가 중요하다고 하는 줄 아느냐? 뇌가 굳어지면 안 된다고도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 뇌 완성이 혼체 완성이다. 이는 뇌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함의 원리 속에 혼체의 완성이 이루어짐이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③ 육신이 뜻하는 것을 뇌로 하라.

◇ (주님, 가끔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육신이야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24시간을 주어도 24시간 노방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말씀을 공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육신이 못하는 것 너로 하라는 것이다. (20130816 뇌를 최대한 써라 - 황인선)

㉠ **뇌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만이 지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 휴거는 진행 중이다. 너희가 스스로 알 것이다.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때가 되었다. 각자 몸부림치는 대로 수준대로 휴거다. 뇌를 최대한 사용하자. 그것만이 지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 감독이 지명 타자를 세우듯이, 축구 경기 중 결정적인 찬스에 세우는 선수가 있듯이. (20130816 뇌를 최대한 써라 - 황인선)

㉡ **성자 주님께서 휴거를 이루기 어려운 자들이 휴거를 이룰 수 있는 뇌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 지금 성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뇌라는 기회를 주셨다. 이는 휴거를 이루기 어려운 자들이 휴거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역전골을 넣을 때이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 말 마지막 공격 만루 상태다. 지금 휴거의 때가 이와 같다. 나의 말대로 뇌를 사용하는 데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는 역전 홈런까지는 못 해도 역전 안타는 친다는 것이다. (20130816 뇌를 최대한 써라 - 황인선)

㉢ **생각으로 나와 소통하며 생각으로 휴거되는 것이다**

◇ 기회다. 뇌를 사용하자. 생각으로 나와 소통하며 생각으로 휴거되는 것이다. 휴거에 집중하여 생각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방법이 생각나고 육의 행위 또한 부활될 것이다. 사랑한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늘 집중하고 소통하자. (20130816 뇌를 최대한 써라 - 황인선)

④ **뇌와 혼체의 상관관계**

; 혼체는 집을 실제로 짓는 것과 같고, 뇌는 집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과 같다.

◇ 뇌는 물체라서, 혼체와는 다르다. 혼체는 집을 실제로 짓는 것과 같고, 뇌는 집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과 같다. 뇌는 물체라서 네가 생각한 대로 바로 그려지고 기록된다. 네가 네 ‘뇌’라는 그림을 그리면 그것에 무엇이 있겠느냐. 네 하루 삶을 생각하면 된다. 24시간 중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각하였는지 생각하여 뇌를 그리면 네 뇌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가변적인 것이어서 매일 하는 생각이 다르고, 또 해가 넘어갈수록 하는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뇌는 그림 같은 것이다. 이 뇌로, 곧 생각으로 혼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혼체는 이 그림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네 뇌가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들 중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그려지는 것들을 혼체는 실제 집으로 짓는 것이다. 그러니 고유한 혼체는 잘 변하지 않는다. 실제 지은 집을 허물고 다시 짓겠느냐. 그러니 한 번에 잘 지어야지. 지금, 너희 혼체를 형성할 때, 부술 것은 부수고 다시 짓고 새로 멋지게 만들어야 한

다. 그러면 그 이전에 ‘뇌의 그림’이라는 설계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생각으로 그린다. 네가 어떤 생각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설계도가 달라진다. 너라는 인생은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진 집과 같다. 곧 보이는 혼체라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이지. 이처럼 **네 혼체를 형성하고, 영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너의 생각이다. 네 생각은** 듣는 것에 따라 달라지며,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이 뇌의 작용, 곧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잘 해야 한다.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⑤ **뇌가 굳어짐은 생각의 굳어짐, 행동의 굳어짐과 같아 생각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 (선생님께서 뇌가 굳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뇌가 굳어짐은 생각의 굳어짐, 행동의 굳어짐과 같다.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하나, 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문제는 많은데 근본을 모른 채 죄를 짓는 자들이 많아서 말함이고, 다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지 못함의 말은 결국 뇌도 안 쓰면 굳어져, 그 기능을 못 하니 행동하지 않고 편안 것만 찾고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제자리에 머무는 것과 같다. 결국 생각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만약 선생이 무슨 말씀을 해 주었다면, 뇌의 기능이 퇴색하지 않고, **뽄뽄한 뇌는 살아 숨을 쉬며 계속 생각을 한다.** (20130905 뇌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⑥ **뇌는 처음 받아들이는 생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반복적이고 학습적인 것에 익숙하여 네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처음 받아들이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⑦ **말씀을 들은 뇌는 말씀을 들은 뇌로 변화된다.**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⑧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생각을 놀리면 생각을 놀리는 뇌로 굳는다. 나 성자를 생각하면 나 성자를 생각하는 뇌로 굳는다.**

◇ 이 휴거의 때에, 뇌를 빨리 성자 생각, 말씀 쪽으로 굳혀야 한다. 돌덩어리같이 안 좋게 굳은 뇌라도 훈련하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모두 영 휴거의 신령한 뇌로 만들어라.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생각을 놀리면 생각을 놀리는 뇌로 굳는다. 나 성자를 생각하면 나 성자를 생각하는 뇌로 굳는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들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행함으로 그 뇌를 굳혀라. 안녕.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2. 혼체

◇ **영은 영체, 혼은 혼체, 욕은 욕체를 가지고 있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1) 혼체의 말씀은 나와 통하는 근본의 말씀이니 깊이 상고하며 생각하여라.

◇ 이 혼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생각하여라. 나와 통하는 너희 근본의 말씀이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라.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2) 혼체를 너희에게 밝히는 이유

① 바로 욕으로 만나듯 혼으로 매일 사랑하며 누리고 살라고 함이다.

◇ 그렇다. 혼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욕으로 만나듯 혼으로 매일 사랑하며 누리고 살라고 함이다. 혼체의 말씀은 선생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욕의 한계를 벗어나 혼을 통해 보다 영으로 만나고 같이 살고자 풀어 낸 사랑의 말씀이다. 그 깊은 심정 깨닫게 자세히 말해 줄게. (20130706 혼체로 사랑과 소통의 문을 열어라 - 정초연)

② 영혼욕을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하여 너희를 온전하게 휴거시키려 함이다.

◇ 마지막으로 혼체의 비밀을 깨우쳐 주는 이유는 너희 영 혼 욕을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하여 너희를 온전하게 휴거시키려 함이니라. (20121218 혼체를 통해 완벽한 영체로 부활하여라 - 정빛별)

③ 너희 욕과 영이 더 빨리 변화하라 함이다.

◇ 내가 혼체를 밝히는 것은 너희 욕과 영이 더 빨리 변화하라 함이다. 시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놓았지만 이 문도 때가 되면 닫힐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선생이 살아 있을 때 나의 신부, 너희 모두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했다. 너희는 기억하느냐? (20121005 혼체를 통해 나를 만나라 - 김형수)

④ 네가 내(=성자)게 더욱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나 성자의 사랑이다.

◇ 혼체 세계는 50년 만에 밝혀진 세계이다. 선생이 나 성자를 사랑하고, 내게 배우면서 가

장 오랜 시간에 걸쳐 너희에게 선포한 진리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성약 신부시대는 네가 창조목적에 이루어 영과 육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세계이다. 그러니, 영과 육이 온전해지기 위해 너희 스스로 더욱 갈고 닦으며 깨끗이 해야 할 때이며, 내가 너희의 영과 육을 만드는 때이니, 분명 나와 통해야 할 때이다. 사랑아. 다 때가 있다. 흐름을 타고 행하여라. 바람이 불 때 노를 저어라. 그리하면 쉽다. 내가 영계의 문을 열어 놓고 혼체의 비밀을 풀어 놓음은 내가 내게 더욱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나 성자의 사랑이다. 그러니, 사랑아. 마음을 비우고 더욱 집중하여라.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⑤ 나의 재림의 때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도 능히 나를 깨닫고 알게 하려 함이다.

◇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내가 혼체를 너희에게 밝힘은 나의 재림의 때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도 능히 나를 깨닫고 알게 하려 함이다. 나는 너희에게 혼체에 대해 밝히 말하였다. 나는 전능자의 영이라 너희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한다. 영계는 질서와 법칙의 세계이므로 자기 급에 따라 통할 수 있는 세계다. 그러니 너희가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나를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고 만나고자 하여도 만날 수 없으니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주어 가르쳐 너희로 누구든지 깨달아 알고 나를 만나라 하는 것이다. (20121005 혼체를 통해 나를 만나라 - 김형수)

⑥ 혼체를 밝히 말함은 혼체를 통해 선생을 만나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3) 혼체(=정신체)

① 혼은 형체가 있다. 그러니 이제는 ‘혼’이 아니고 ‘혼체’임을 밝힌다.

◇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50년 만에 인봉을 떼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선생이 기도하여 혼 ‘혼’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있으니, 바로 형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제는 혼이 아니고, 혼체임을 밝히는 바이다. 때가 되니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니 너희는 듣고 이해하며 믿으면 된다. (20131030 혼체, 육체, 영체로 세 겹줄이며 하나이다 - 이윤주)

② 혼체란?(혼체의 개념)

① 혼체(=정신체)는 정신 자체가 모양을 형성한 것으로 정신, 생각, 마음의 형상이다.

◇ **혼체, 즉 정신체**는 정신 자체가 모양을 형성한 것으로 정신, 생각, 마음의 형상이다. 고로 형상 자체가 혼으로 육의 구조와는 다르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㉔ **마음·정신·생각이 강해지면 뚜렷한 형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혼체다.**

◇ 혼체가 정확히 감이 잘 안 잡히는 듯하니,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마. 마음, 생각, 정신이 강해지면 어떤 형체를 뚜렷이 이룬다. 그게 혼체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㉕ **마음, 생각, 정신을 많이 써서 강하게 할수록 그 형체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유지되는데 이것을 혼체라고 한다.**

◇ 혼체를 간단히 설명하면, 마음, 생각, 정신은 원래 그 형체가 없거나 미미하나, 마음, 생각, 정신을 많이 써서 강하게 할수록 그 형체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유지되는데, 이것을 혼체라고 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㉖ **혼체는 각각 마음체, 생각체, 정신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으나 마치 몸통에 연결되어 있는 팔과 다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준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 혼체는 나무 한 그루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 나무는 세 개의 뿌리 즉, 마음, 생각, 정신으로 되어 있다. 각각 마음 뿌리, 생각 뿌리, 정신 뿌리가 강하고 튼튼해질수록, 나무는 점점 자라서 거목이 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㉗ **밤에 잘 때 마음, 정신, 생각이 혼계에서 육의 형상을 띠고 나타난 것이 혼체다.** (20130908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와의 관계성 - 이선진)

㉘ **(혼체는) 집념, 신념이 강할수록 마음, 생각이 정확할수록 시대 말씀을 들을수록 뚜렷하고, 행할수록 빛이 나게 선명하다**

◇ 혼체의 형성은 마음과 생각이 집중하게 되어 혼체를 발동시켜서 이루는 것이니, 집념, 신념이 강할수록 마음, 생각이 정확할수록 시대 말씀을 들을수록 뚜렷하고, 행할수록 빛이 나게 선명하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혼체는 육체의 반영체이며, 또한 육체와 영체의 매개체로서 가교 역할을 한다. (20130606 뇌 사랑이란 영계 파장의 사랑이다. - 이주인)

㉙ **영과 혼이 일체 되면 영혼, 혼과 육이 합쳐지면 혼의 다른 이름인 신으로 육신이 된다**

◇ 혼은 크게 혼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마음, 정신, 생각, 신, 의, 지, 정 등으로 불린다. 그렇기에 영혼이라고 말하며 육신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혼이 영과 육을 연결해 준다는 것, 너희도 알지? 영과 혼이 일체 되면 영혼, 혼과 육이 합쳐지면 혼의 다른 이름인 신으로 육신이 된다는 말이다. 즉, 삼위일체의 세 겹줄처럼, 사람은 영, 혼, 육의 형체로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말을 밝히는 바이다. 그렇기에 육계, 영계가 있듯이 혼계도 있다. (20131030 혼체, 육체, 영체로 세 겹줄이며 하나이다 - 이윤주)

㉠ **육의 모습은 혼체가 육이라는 포장지를 입은 것이니, 그것도 혼체라고 볼 수 있다.**

◇ 사람들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세계니 어렵게 생각한다. 지금 거울 앞에 가서 육의 모습을 보면 잘 보이지? 그(=육의) 모습은 혼체가 육이라는 포장지를 입은 것이니 그것도 혼체라고 볼 수 있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혼체란 영체의 축소체이며 육체의 확대체다.**

◇ 영체의 축소체이며 육체의 확대체이다. 네 육의 근본을 보려면 혼체를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처럼 작은 영체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③ **육과 혼체와 영의 명령체계**

◇ 육은 정신이 전달한 내용을 듣고 행하고, 혼은 정신 자체로 움직이고, 영은 정신의 생각과 마음을 흡수하여 움직인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 **육이 생각을 하기에 따라 혼체, 즉 정신체가 형성되고 다시 정신이 육신을 사로잡아 살게 된다.**

◇ 육이 생각을 하기에 따라 혼체, 즉 정신체가 형성되고 다시 정신이 육신을 사로잡아 살게 된다. 이는 마치 육이 어릴 때는 육이 정신을 이끌고 살지만 육이 성장하면 형성된 정신에 따라 이끌려 사는 이치와 같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 **혼은 정신 자체로 움직인다.**

㉤ **정신체(=혼체)는 정신 자체가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체 자체가 전체의 뇌와 같다.**

◇ 육은 뇌에서 전달받은 행위를 육의 각 기관이 행하지만 정신체는 정신 자체가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체 자체가 전체의 뇌와 같다. 이는 육신과 달리 명령 체제가 따로 없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 행하는 것을 말한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⑥ **육은 뇌가 전달한 것을 행하지만, 혼체(=정신체)는 그 자체가 생각이고, 정신이요 마음이니 정신의 형상을 쓰고 명령 체계없이 생각하면 바로 움직인다.**

◇ 육은 ‘뇌’가 전달한 것을 행한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우선 뇌가 말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에게 가도록 육을 움직여 말을 전달하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혼체는 정신체로 그 자체가 생각이고, 정신이요, 마음이니 정신의 형상을 쓰고 명령 체계 없이 생각하면 바로 움직인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④ 혼체의 특성

㉠ **혼체도 육체에 비해 전지전능하여 가고자 하면 가고 오고자 하면 올 수 있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혜)

◇ 정신체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만질 수도 만날 수도 있다. 다만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를 뿐이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 **혼체도 육체에 비해 전지전능하여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혜)

㉢ **혼체도 육체에 비해 전지전능하여 생각과 마음이 맞는 자는 혼체 세계에서 서로를 더욱 잘 알아보게 되며 그 느낌과 강도가 강하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혜)

㉣ **판타지한 일들이 혼적 세계에서 나타난다. 혼체의 활동이다.**

◇ 3D 알지? 판타지한 일들이 혼적 세계에서 나타난다. 일어난다. 혼체의 활동이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혜)

⑤ 혼체의 중요성

㉤ **첫째, 혼체는 영체에 속해 영의 빠른 성장을 돕는다. 그래서 휴거의 영이 되기 쉽도록 돕는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 **둘째, 또한 이 혼체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차원이 높아지면 이 혼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선생도 만나고, 혼체의 법에 제재 받지 않는 한 영계도 갈 수 있고, 육으로 못한 것을 혼체로 함으로 이룰 수 있으니 엄청나다. 즉 휴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4) 혼과의 대화

① 혼과의 대화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의 대화다.

◇ 혼과의 대화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의 대화다. 실상 너희가 항상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쪼개어 알려 주었으니 더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② 기도는 대화다. 정신 나눔이다. 나의 정신을 받는 것이다.

◇ 기도는 대화다. 만남이다. 마음 교통이다. 정신 나눔이다. 나의 정신을 받는 것이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는 것이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5) 선생과 만남, 대화, 소통

◇ 하나의 이야기로만, 방법론으로만 듣지 말라. 지금도 선생 혼체로 만나는 자들은 날마다 차원을 높이며 시대 사명자와 교통함으로 영계의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① 선생을 만나야 휴거된다.

◇ 선생 만나는 것이 휴거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진정 선생 만나야 휴거된다.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려면, 육계에서 그의 육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와 통해야 해. 시대 사명자이니 그와 통하는 것이 나와 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에게만 기도하는 자들, 이제 선생과 통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를 통해 내가 모든 일을 하니, 그와 통해야 나와 통하는 것이 된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선생과) 육으로도 통하지만, 영으로, 혼체로 통해라.

◇ 육으로도 통하지만, 영으로, 혼체로 통해라. 너희, 특히 전반기에 온 자들은 선생과 혼체로 통하는 것에 대한 감이 많이 없고, 이 말씀을 흘려듣는 자들도 있기에 나 성자가 차근차근 그와 어떻게 통하는지 말하였다. 나 성자를 만나듯, 그를 만나라.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혼체로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사연도 말하고, 코지도 받고, 면담도 하는 것이다

◇ 혼체로 대화도 하고, 사연도 말하고, 코지도 받고, 면담도 하는 것이다. 자기 육신을 훈련하여 영을 만드는 자를 따라갈 수 없듯, 선생 혼체와 만나는 것을 훈련하여 잘 만나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 마치 이것으로 자신의 휴거가 결정된다 생각하고, 선생을 간절하게 만나자.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선생은 지금 혼계에서 혼체로 개발하여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으니 그는 그를 부르는 자에게 가고, 대화한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혼계에서 선생을 집중하여 만나지 않으면, 네 육의 힘에 이끌려 순간 파장이 흩어지니 선생을 만날 때는 나 성자를 만날 때와 같이 집중하여라.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㉔ 너희가 선생의 사상과 사고인 말씀을 많이 보고, 실제로 그를 만나야 그와 육으로도 더 잘 통할 수 있게 된다.

◇ 사람끼리도 잘 통하려면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알아야 하듯, 너희가 선생의 사상과 사고인 말씀을 많이 보고, 실제로 그를 만나야 그와 육으로도 더 잘 통할 수 있게 된다. 그의 혼체는 실상 그이고, 육보다 더 차원 높은 '선생'이니 차원 높여 혼체로 그를 만나자. 만나 본 자만이 그를 알고,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된다. 나 성자 만나듯, 부르듯, 그를 부르고 만나자.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㉕ 선생을 잘 만나는 자는 간절한 자다.

◇ 선생 어떤 자가 잘 만나겠냐. 간절한 자다. 간절한 자 못 따라간다. 간절한 자는 기도하고, 노력하며, 간구한다. 고로 나 성자가 선생과 통하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너의 길을 내준다. 그러니 간구하여라. 간절하여라.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㉖ 선생은 파장을 맞추어 놓고 너희들은 만나려 기다리니, 같은 파장을 맞추는 자는 100% 만난다. 간절히 기도하면 만나진다.

◇ 선생이 꿈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은 혼체의 인봉을 푼 자로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는 비밀의 말로, 깨닫고 행한 자는 이 말의 비밀을 안다.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다. 생각의 파장을 맞춰야 만난다. 선생은 파장을 맞추어 놓고 너희들을 만나려 기다리니, 같은 파장을 맞추는 자는 100% 만난다. 간절히 기도하면 만나진다. (20130706 혼체로 사랑과 소통의 문을 열어라 - 정초연)

② 월명동에서 만나자

㉗ 나 보고 싶으면 월명동 와. 혼체로 만나준다.

◇ 나 보고 싶으면 월명동 와. 혼체로 만나 준다. 다들 내가 있는 곳만 생각하면서 나 지금 있는 곳 오기도 하는데 월명동에서 자유롭게 만나자. 내 혼체 자주 오니까. 나는 항상 월명동 하나님 자연성전 생각하고, 구상 받고 하니, 너희도 육신으로 월명동 오면 마음 집중해서 혼체로 나 만나 봐. 그래야 한 번 와도 깊이 있게 배우고, 느끼고 갈 수 있지 않겠냐.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 다들 그림다. 사람 적을 때 와서 서로 뜨겁게 만나자.

◇ 다들 그림다. 고로 만남의 장소, 월명동에서 만나자. 사람 많을 때, 행사 때만 오면 깊이 있게 만나기 힘들니 사람 적을 때, 그럴 때도 와서 우리 서로 마음 뜨겁하게 만나자. 지금은 혼체로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엔 육체로 만나는 것이다.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 사람들이 월명동 와서 내 혼체를 만나고 가도 모른다. 혼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 (월명동 돌 조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운동장 가운데에 선생님 혼체가 보였고,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해서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제 앞으로 웃으시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시며 ‘반갑다. 월명동 언제 왔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손을 잡으며 “화요일에 왔어요.”하고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왜 나한테 인사하러 안 왔어?’하셨습니다. 마치 월명동에 항상 계시는 선생님한테 인사드리지 않고 혼자 월명동에 돌아다니다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에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혼체를 만나러 가려면 항상 지금 선생님이 계신 곳을 생각하며 정신집중을 했는데, 월명동에서 만나는 선생님의 혼체는 무척이나 뚜렷하고 신비했고 육신을 보는 것처럼 실감났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히 있으니 선생님께서 제 옆에 앉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월명동 와서 내 혼체를 만나고 가도 모른다. 혼체로 만나고, 생각으로 나를 만나 감동 받고 가도 몰라. 혼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삼위도 월명동에 자주 오셔서 월명동 성전을 자주 거니시고 내 혼체도 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에 와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더 해 드릴 것은 없는지 항상 살펴본다. 매일매일 오는데 몰랐지?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 섭리 사람들 대부분 월명동에 와서 나 느끼는데 혼체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생각 못 한다.

◇ 섭리 사람들 대부분 월명동에 와서 나 느끼는데 혼체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생각 못 한다. 나 여기 있어. 자주 와. 자주 와서 기도하고 나 만나고 삼위도 만나고 월명수도 먹고 가.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 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마음과 마음으로, 혼체와 혼체로 만나니까 보고 싶으면 오면 된다.

◇ 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분명히 나를 만날 수 있다. 마음과 마음으로, 혼체와 혼체로 만나니까 보고 싶으면 오면 된다.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㉔ **월명동에서는 더 실제로 만날 수 있으니 좋다.**

◇ 나는 부르면 언제나 너희를 만나러 가지만 이곳(=월명동)에서는 더 실제로 만날 수 있으니 더 좋아. 모두들 보고 싶다. 그리움이 쌓여 혼체로 만나니 만난 자는 감사감격이다. 안녕.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㉕ **월명동 모든 곳에 뜻이 있고, 사연이 있고 선생의 정신이 있는 곳이니 너희도 이곳에서 선생의 정신을 배우고 만나라**

◇ 선생은 월명동에서 나고 자랐다. 그리고 섭리역사도 이곳에서 깊이 있게 행했으니 월명동 모든 곳에 뜻이 있고, 사연이 있고 선생의 정신이 있는 곳이니 너희도 이곳에서 선생의 정신을 배우고 만나라. 보고 싶음의 갈증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다.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㉖ **나도 항상 월명동이 그리워 혼체로 돌도 캐고 조경도 살피고 월명동 구석구석 살피고 있다.**

◇ 전반기 때 월명동 오면 나 있으니 다들 나 보러 오곤 했는데 지금은 없다고 쓸쓸해한다. 나도 항상 월명동이 그리워 혼체로 보러 다니지. 혼체는 언제나 자유로워서 돌도 캐고, 조경도 살피고 월명동 구석구석 살피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 가운데 월명동에서 돌 찾고, 제자들에게 찾으라고 했다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월명동에 살고 있는지 몰라.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㉗ **선생은 월명동에 자주와서 두루살피면서 사람들이 와서 나 잘 만나고 가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기도한다.**

◇ 선생, 자주 오지, 선생의 또 하나의 분체가 월명동 아니냐. 고로 월명동도 두루 살피면서 사람들이 와서 나 잘 만나고 가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기도하며 행한다.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③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

㉘ **선생과 통하기 1**

; 마음 비우기 ; 선생과 혼체로 정말 잘 통하고 싶으면 먼저 선생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인식, 자기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러면 선생이 그대로 네 마음에 느껴져 오고 선생의 생각도 받을 수 있다.

◇ 선생과 통하는 것은 나 성자와 통하는 것과 같고, 통하는 방법도 같다. 마치 휴거되는 것과 같다. 자세히 알려 줄게. 휴거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있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이 뇌에 들어가지 않아서 자기 사상이 되지 않는다. 고로 휴거되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지. 이것과 같다. 선생과 혼체로 정말 잘 통하고 싶으면 먼저 선생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인식, 자기 마음을 비워야 한다. 자기 마음을 없애고 선생과 통한다면 선생이 그대로 네 마음에 느껴져 오고, 선생의 생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성자와 통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것이 통하려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선생과 통하기 2

; 선생에 대해 공부하기 ; 선생이 행한 것, 선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삼위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역사를 펼쳐 왔는지 그리고 선생의 정신을 알면 선생 혼체와도 더 잘 통한다.

◇ 마음을 비웠으면, ‘선생에 대해 공부하기’다. 너희도 친구 만날 때 너를 잘 아는 자, 모르는 자와 만나는 것은 대화가 천지차이이지 않느냐. 선생 혼체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선생의 육을, 그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 자는 선생과 더 잘 통한다. 선생이 행한 것, 선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삼위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역사를 펼쳐 왔는지 알면 선생 혼체와도 더 잘 통한다. 또 그의 정신의 형체가 혼체이니, 그의 정신을 알면 혼체와 더 잘 통하겠지. 나 성자를 만날 때도 이와 같다. 또,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면 확실히 알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휴거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는 단계이고 깨닫는 단계이지. 그러니 선생과 더 잘 통하고 싶으면 그의 사명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를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알아주고, 마음이 통하고, 혼체도 통한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선생과 통하기 3

; 자신을 비우고, 선생 말씀 듣고 그를 깨달았다면 이제 누구나 선생과 혼체로 만날 수 있다.

◇ 자신을 비우고, 선생 말씀 듣고 그를 깨달았다면 이제 누구나 선생과 혼체로 만날 수 있다. 먼저 ‘혼체’라는 개념을 정확히 하고, 자신의 혼체를 사용해 보아라. 자신의 혼체를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선생 혼체는 어찌 만나느냐. 그러니 먼저 나 성자에게 간구하고, 사용해라. 써먹어라. 이것을 휴거되는 과정으로 비유한다면 너희 육이 행하는 것과 같다. 육신이 행해야 영이 빛나게 변화되듯이, 혼체를 사용하고 행해야 그것에 대한 감도가 살아나고, 발달되게 된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④ 편지가 육적인 소통이라면, 혼체는 혼적인 소통, 기도는 영적인 소통이다.

◇ 편지가 육적인 소통이라면, 혼체는 혼적인 소통, 기도는 영적인 소통이다. 분체와의 소통을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개통하여 나 성자와 소통하여라. (20130706 혼체로 사랑과 소

통의 문을 열어라 - 정초연)

㉦ 소통에는 심통, 혼통, 영통이 있다.

◇ 소통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마음이 통하는 심통이 있고 혼이 통하는 것인 혼통이 있다. 그리고 영이 통하는 영통이 있다. 이 중 영통이 가장 높은 단계인데 선생은 혼통의 단계에서 때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과 달리 영통의 단계에서 때를 풀었다. 혼체보다 더 높은 단계인 선생의 영체가 영체이신 삼위의 세계에 올라가 삼위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이다. 선생은 이 영통의 단계에서 말씀을 받았고 전하고 있다. (20130906 혼통하여 계시 받아라 - 장정희)

6) 혼체를 활동하게 하는 방법 ----- 혼체를 움직이는 방법

※ 16페이지 「③ 육과 혼체와 영의 명령체계」 참조

① 혼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는 혼체를 움직일 수 없다.

◇ 육의 부활을 거친 자가 혼체의 변화를 바라보고, 혼체의 변화를 거친 자가 영체의 변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육의 성장 없이는 혼체가 발동할 수 없고, 혼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는 혼체를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달아라.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② 사람이 살 때, 육은 육계에서 활동하고 영은 영계에서 활동하고 혼도 혼계에서 활동을 한다. (20131030 혼체, 육체, 영체로 세 겹줄이며 하나이다 - 이윤주)

㉦ 뇌를 뿌리로 해서 육계에서는 육체가 움직이고, 혼계에서는 혼체가 움직인다.

◇ (혼체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고민하며 성자와 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자께서 혼체에 대해 더 말씀해 주셨는데 도통 어려워서 저도 겨우 알아들었습니다. 성자께서 혼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읽어 보다가 ‘이건 너무 어렵네.’ 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어렵냐? 혼체는 또 다른 육신이지. 혼계의 세계에서 보면 육체의 모습처럼 혼체가 훤히 보인다. 뇌를 뿌리로 해서 육계에서는 육체가 움직이고, 혼계에서는 혼체가 움직이니 어려울 것이 없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정신, 생각을 뿌리로 두고 육계에서는 육신의 행위라는 열매가 열리고, 혼계에서는 혼체의 행위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자신의 생각, 정신, 마음을 뿌리로 한 육과 혼의 행위가 육체고 혼체이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㉔ 육계에서 움직이는 정신체는 뇌라는 ‘기능’ 을 쓰고 행하지만, 혼계에서 움직이는 정신체는 육의 ‘형상’ 만을 쓰고 전체가 뇌의 기능을 하여 움직인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③ 혼체를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과 진리의 성령 그 핵심 분체이다.

◇ 혼체를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 기도와 말씀 그리고 진리의 성령 그 핵심 분체이다. 혼체의 세계의 문을 연 분체를 통해 혼체의 세계에 들어움이 가장 빠르다. 분체의 이름을 절대 믿고, 그와 일체 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계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④ 혼체의 발동

㉕ 자주 많이 하는 생각들은 혼체를 움직이게 하는 열쇠와도 같다.

◇ 혼체는 마음, 생각, 정신의 ‘근본’적인 생각들이 형성되어 육신 형상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자주 많이 하는 생각들은 마치 혼체를 움직이게 하는 열쇠와도 같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㉖ 순간 떠오른 ‘밥 먹어야지’ 라는 생각은 육신을 움직이지, 혼체를 움직이지는 않는다.

◇ 잡히지 않는 순간순간 떠다니는 생각이 혼체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 순간 떠오른 ‘밥 먹어야지’ 라는 생각은 육신을 움직이지, 혼체를 움직이지는 않는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㉗ 혼체를 움직이는 것은 ‘자주’, ‘많이’, ‘핵심적’ 으로 하는 생각이다.

◇ 혼체를 움직이는 것은 ‘자주’, ‘많이’, ‘핵심적’ 으로 하는 생각이다. 만약 밥 먹겠다고 하는 생각이 육신 자체가 배고파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뇌가 중독되어 자주 많이 한다면 혼체도 그리 행하며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삶을 살면서 유지하는 수준, 또는 흘러가는 수준에서 생각되는 가벼운 생각들은 혼체를 움직이지 못한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예외1) 잦은 자위행위로 인해 자주, 많이, 이성 타락의 생각에 중독되었고, 이성 쾌락을 쫓는 자의 혼체는 이미 발동해서 4차원 혼계에서 이성 타락을 하거나, 더러운 이성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예외2) 또 반대로 자주, 많이, 깊이, 그 마음에 근본에 선생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자는 혼체가 선생과 가까운 곳에 있거나, 자주 선생을 찾아가거나, 혼체로 선생과 소통하게 된다. 그 차원 급에서 선생을 만나고 가까이 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㉟ 너희가 자주 근본적으로 마음을 두고 하는 거대한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혼체를 발동시키게 한다.

◇ 고로 혼체를 발동시키는 것은 한 번의 생각, 또는 하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뜬 구름 같은 많은 생각에 따라 혼체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주 근본적으로 마음을 두고 하는 거대한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혼체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혼체는 육신의 결과체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혼체의 세계에서 혼체가 너희가 생각하고 행한 대로 행하고 있다

◇ 혼체는 육신의 결과체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혼체의 세계에서 혼체가 너희가 생각하고 행한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고로 육신의 행위가 너무나 중하고, 육신의 행위에 앞서 엔진과도 같은 마음, 생각, 정신을 온전히 하는 것도 너무나 중하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생각하는 대로, 혼체도 움직이고, 육이 행동하는 대로 혼체도 육이 닮아 혼계 자원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 생각하는 대로, 혼체도 움직이고, 육이 행동하는 대로 혼체도 육이 닮아 혼계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뇌가 휴거의 비밀이라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자가 많다. 뇌는 육체도 움직이고, 마음, 생각, 정신도 움직여 혼체도 움직인다. 고로 뇌가 핵심 키 아니냐.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자주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커지고, 커지게 되면 육체도, 혼체도 결국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 (네, 혼체가 발동하는 방법도 쉽게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 주자면 자주 생각하면 된다. 자주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커지고, 커지게 되면 육체도, 혼체도 결국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고로 얼마나 강한 생각이냐가 중요하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고 하지? 혼체와 육체는 원인과 결과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혼체에서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육체에서 먼저 일어나기도 하니 일어나는 순서가 각각 다를 뿐 자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혼체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육신도 긍정적 상황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내가 오늘 가장 많이 한 생각과 행동으로 네 혼체의 오늘 자원이 결정되어 그곳에

거하게 된다.

◇ 네가 오늘 가장 많이 한 생각과 행동으로 네 혼체의 오늘 차원이 결정되어 그곳에 거하게 된다. 쉽지 않냐. 이리 말해 주면 보이지 않는 자도 자기 혼체가 어느 수준인지 알겠지. 형제와 싸우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혼체도 혼계에서 형제와 싸우면서 말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인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뇌의 활동의 결과체가 육체, 육체의 결과체가 바로 혼체다. 육체와 혼체의 행위의 결과로 영의 운명을 좌우한다.

◇ 하루 종일 나와 대화해 봐. 혼체가 어디에 가 있겠느냐. 육체는 나와 대화하는데 혼체가 다른 길로 가 있겠느냐. 뇌의 활동의 결과체가 육체, 육체의 결과체가 바로 혼체다. 육체와 혼체의 행위의 결과로 영의 운명을 좌우한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⑤ 낮에 혼의 활동

㉠ 육계에서의 혼은 육과 일체 되어(=육을 쓰고) 활동 한다.

◇ 중요한 것은 육계에서는 마치 영처럼 혼은 혼자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인 내가 육인 선생 쓰고 하듯, 육계에서의 혼은 육과 일체 되어 하나 되어 활동한다는 것이다. (20131030 혼체, 육체, 영체로 세 겹줄이며 하나이다 - 이윤주)

㉡ 혼은 생활 가운데 간접적인 생각이나 마음으로 함께한다. (20131030 혼체, 육체, 영체로 세 겹줄이며 하나이다 - 이윤주)

㉢ 육을 쓴 혼이 먼저 작동해야만 육도 영도 이어져 움직이며 작동한다.

◇ 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랑도 믿음도 혼부터다. 정확히 말하면 육을 쓴 혼이 먼저 작동해야만 육도 영도 이어져 움직이며 작동한다. 그러니 혼체를 개발해야 한다. (20131030 혼체, 육체, 영체로 세 겹줄이며 하나이다 - 이윤주)

⑥ 잘 때 혼계에서의 혼체의 활동

◇ 잘 때 꿈에서 활동하게 하고, 기도할 때 혼체로 느껴 보아라. 자기가 기도할 때 혼체도 볼 수 있고 영체도 볼 수 있다. 자신의 혼체와 대화도 가능하고, 혼체를 시켜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너희가 잘 때 혼계가 열리고 혼계에서 혼체가 직접 활동을 한다. (20131030 혼체, 육체, 영체로 세 겹줄이며 하나이다 - 이윤주)

㉠ 혼체를 활동하게 하는 방법

㉡ 잠을 자기 전에 선생을 부르고 잠들자. 그러면 네 혼체로 선생을 부르는 것이 되어 선생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

◇ 이제, 선생을 불러라. 기도할 때 정신 집중하여 불러 보아라. 혼체가 활동하는 꿈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을 부르고 잠들자. 그러면 네 혼체로 선생을 부르는 것이 되어 선생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집중하여라. 기도할 때 집중하고, 잘 때도 집중하여 나 성자에게 기도하고 혼체로 들어가라. 이미 모두 할 수 있다고 했고, 방법을 일러 주었으니 너희가 마음먹고 간구한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자기 전 잠이 들것 같은 순간 자기 혼체를 불러봐라.

◇ 후에 자기 전 잠이 들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제 혼체를 불러 보았습니다. 제 육은 누워 있었고 제 잠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서 저와 비슷한 얼굴을 한 제 혼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체에게 “내가 주님께 혼체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더욱 많이 혼체에 대해서 받고 싶은데... 네가 좀 알려 줘라.” 말하니 “그런 건 알려 줄 수 없어. 그건 혼체의 법에 어긋나. 네가 깨달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어. 너 얼른 가서 선생님 좀 도와드려. 이상한데 다니지 말고.” 하니, “알겠어. 네가 잘해 주면 나는 당연히 네 혼체이니 잘해.”하고 사라졌습니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 기도할 때, 혼체를 활동하게 하는 방법(=혼체 사용하는 법)

◇ 육체가 기도 상태를 유지하면 혼체가 기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생각의 에너지를 일으켜 더 깊이 집중하게 한다. 이처럼 마음, 정신이 집중하면 혼체가 움직인다. 이 혼체가 움직여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기도의 대상인 나 성자와 선생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계시를 받으려면 혼체가 생각하게 하여라. 혼체의 생각은 혼통으로, 사랑으로 통하는 것이다. 사랑 또한 감정으로 정신, 생각, 마음에 들어간다. (20130906 혼통하여 계시 받아라 - 장정희)

㉤ 기도할 때 혼체를 발동시키는 방법

㉥ 기도할 때 영적인 혼체가 열리니, 기도를 깊이 할 때 너희의 혼체를 불러보아라.

◇ 기도를 깊이 할 때 너희의 혼체를 불러보아라. 기도할 때 영적인 혼체가 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⑥ 기도는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마음을 모으는 육적인 일에서 뇌를 움직이는 일 곧 생각하게 하는 정신적 일의 과정을 거쳐 혼체를 움직이게 한다. (20130906 혼통하여 계시 받아라 - 장정희)

㉠ 너희 육이 기도하면 너희 뇌, 마음, 정신, 생각이 활발히 움직인다. (20130906 혼통하여 계시 받아라 - 장정희)

㉡ 마음과 정신을 쏟아낼 때 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 혼체는 집중하며 마음과 정신을 쏟아 낼 때 발동하지 않나. 그 혼체를 자꾸 자극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선생을 만나 움직이면 혼체가 성장하니 쉽게 생각해라.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새벽 기도할 때 나(=R) 보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하고 혼체 발동시켜 봐. 나를 자주 만나면 휴거에 더 가까운 자가 된다.

◇ 새벽기도 할 때 있지. 나 보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하고 혼체를 발동시켜 봐. 휴거의 열쇠가 나니까 나를 자주 만나면 휴거에 더 가까운 자가 된다.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 기도로 혼계를 뚫은 사람이 평상시 기도 없이 혼계를 다실 수 있는 방법

㉠ (기도하며) 나 성자와 너의 혼체에 대해서 의논하여 보아라.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 (기도하며) 나에게 너의 혼체를 맡기며 부탁하여라.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 (기도하며) 영적인 혼체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보여 달라고 간구하여라.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 (기도하며) 내게 너의 혼체를 선생에게 보내 달라고 하거나, 혼체에게 직접 시켜라. 그러면 네가 느끼지 못해도 가서 일을 한다. 물론 혼체의 수준이 높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소수이니 나는 섭리사 온 신부들의 신량이 아니냐.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 기도로 혼계를 뚫은 사람은 평상시에도 기도 없이 혼계 이곳저곳을 갈 수 있다.

◇ 이렇게 **기도로 영적인 혼체를 뚫은 사람은** 평상시에도 기도 없이 혼체 이곳저곳을 갈 수 있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7) 혼체 세계에 더 빨리 쉽게 들어가는 방법

◇ (주님. 혼체의 세계에 더 빨리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① **사람마다 각 개성으로 발달된 세계가 다르기에 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 누구나 다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 사랑아. 사람마다 각 개성으로 발달된 세계가 다르다. 어떤 자는 육으로, 어떤 자는 혼으로, 어떤 자는 영으로 각각 개발되어 발달하였다. 그러니 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 누구나 다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② **내게 끊임없이 집중이다. 네 기도에 빠지지 말며 조용히 나와 대화하며 나의 소리에 집중하여라.**

◇ 나는 분명 선생 통해 이치와 비밀을 밝히며 말씀하였다. 집중이다! 내게 끊임없이 집중하여라. 기도하며 나와 통하여라. 네 기도에 빠지지 말며, 조용히 나와 대화하며 나의 소리에 집중하여라.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예화1) 혼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며, 네 기도에 네가 내게 하는 말에 집중하며 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저도 계시 받게 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 여럿 있구나. 그리 기도하면 못하고, 못 듣고, 못 본다. 내 말보다 네 말에 집중하며, 네 이야기만 하는 데, 네가 간구한다 해서 이루어지겠느냐?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예화2) 선생 보아라. 말씀 받을 때, 선풍기도 못 켜다 하였지? (아멘!) 선생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기도한다.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 그만큼 초감각으로 예리하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8) 100선 혼체, 200선 혼체, 300선 혼체의 설명

◇ (이후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께서 100선 혼체, 200선 혼체, 300선 혼체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비교해 보자. 100선의 휴거 선의 사람의 혼체는 마치 깨끗한 물 위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고, 200선의 혼체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뚜렷하고, 300선의 혼체는 실제 보는 것과 같이 생동감이 있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① 혼체를 통해 네 자신을 보고 점검해야 더 깊은 단계에 오른다.

◇ 혼체의 중요함을 절대 믿어야 됴을 기억하라. 혼체가 중요하다. **혼체를 통해 네 자신을 보고 점검해야 더 깊은 단계에 오른다.** 알고 느껴야 충격 받고 깨닫는다. 뇌를 열어 보고 싶다면 너의 혼체를 보는 것이 빠르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② 휴거의 단계에 있어 1차원은 넘겼지만 사람들이 2차원으로 활발히 올라감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자기 뇌 속에 사로잡힌 관념과 생각들이 풀어지지 않은 채, 움직이고 뛰기 때문이다.

◇ 휴거의 단계에 있어 1차원은 넘겼지만, 사람들이 2차원으로 활발히 올라감이 쉽지 않다. 이는 아직까지 자기 뇌 속에 사로잡힌 관념과 생각들이 풀어지지 않은 채, 움직이고 뛰기 때문이다. 그래서 뇌를 푸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뇌가 굳어진 상태에서는 생각과 정신, 모든 사고가 그 굳어진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행동하니 아무리 뇌를 푸는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니 그의 따른 행동의 결과가 어찌 되겠느냐. 2차원을 넘고, 3차원 단계에 오름의 법칙은 그 단계에 있는 자의 방법과 지시대로 해야 오를 수 있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니 어찌 제대로 오를 수 있겠느냐. 섭리사를 보면, 1차원 휴거는 선생 통해 말한 방법대로 본인이 노력하고 하기만 하면 쉽기에 금방 오를 수 있으나, 2단계, 3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굳어진 사고와 생각을 버리고, 그 단계에 오른 자와 일체 되어야 자신에게 정한 시간 내에 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굳은 뇌를 푸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일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③ 100선 휴거에 오른 자

◇ 선생을 욕으로만 깨달으면 100선을 겨우 넘는 자라고 하지 않았냐.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④ 200선 휴거에 오른 자

㉠ 200선의 핵심은 혼체가 발동하여 선생을 만나는 것, 선생을 깨닫는 것, 혼체로써 욕을 이끌어 사는 삶이다.

◇ 200선의 핵심은 혼체가 발동하여 선생을 만나는 것, 선생을 깨닫는 것, 혼체로써 욕을 이끌어 사는 삶이다. 자신의 정신과 생각이 혼체를 형성하고 그 형성한 혼체가 자신의 욕을 부활로 이끌어야 한다. 혼체를 사용하는 자가 유리하겠지.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200선 휴거에 오는 자들의 혼체의 특징

◇ (일단 다른 자들과 달리 혼체 자체가 또렷하고 선명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00선의 휴거에 오른 자다. 200선의 휴거 안에서 차원을 나누자면 더 깊이 세밀히, 그리고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200선 휴거에 오른 자들의 큰 특징은

㉡ 100선에 오른 자들보다 혼체가 선명하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혼체의 활동 또한 활발하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욕으로 봤을 때는 시대 진리 말씀을 깨닫고 뒤집어진 자로 선생을 혼체로 깨닫고 정신력이 강한 자를 말한다. 그냥 정신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관이 혼체 차원에서 수준이 높고 깨달음이 정확하다. 고로 100선에 오른 자보다 신령하고, 온전하며 깊이가 다르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혼체가 스스로 활동하니, 그 활동함으로 인해 욕신을 돕기도 하고 혼체로 인해 깨달음이 깊으니 욕신의 행위가 더 나를 향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충기가 남다르고, 말을 해 보면 지혜롭다.

◇ 혼체로 보면, 네가 본 것과 같이 혼체로서의 특징이 있고 실제로 대면해 보면 충기가 남다르다. 말을 해 보면 지혜롭지.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1차원을 넘어섰다.

◇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나요?) 기준선은 있으니 말하는 것이다. 혼체의 부활을 이룬 사람의 특징은, 내가 자꾸 언급하지만, 바로 총명하다는 것이다. 이 총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오는 총명이요, 시대 사명자를 사랑하고 깨달은 것에 대한 지혜와 모략임을 알아라.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200선에 오른 자들은 생각의 기준 자체가 선생으로 향해 있지. 그래서 생각의 기준선 자체가 선생이다. 선생으로부터 시작된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욕신의 근본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다.

◇ (그럼, 화도 잘 안 내겠네요.) **육신의 근본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육신이 있는데 어찌 영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겠냐. 다만 앓을 때를 알고 설 때를 알며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이지.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사랑아, **섭리의 많은 자들이 100선에 오를 수 있음**은 선생이 성자에게 간구하여 비밀의 말씀들, 인봉한 말씀들을 풀어 너희에게 전하여 주어, 너희가 더욱 크고 넓어진 혼계에서 너희를 성장시키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로 육적인 차원으로 선생을 시대 사명자로 깨닫고 뒤집어지는 자가 많았다. 하지만 100선에 오른 자보다 200선에 오르고 **혼체를 발동시켜 사는 자가 적다**는 것을 알아라. 100선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하여서 스스로 멈춰섰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아라. 거듭된 부활은 너희를 **일차원의 휴거선**을 오르게 했으니 거듭된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너희를 **이차원적 휴거**에 오르게 하지 않겠냐. **자꾸 생각과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 계속해야 부활을 이루고 그 부활이 200선 휴거를 이끄는 것이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㉔ 휴거 200선에 오른 자의 혼체는 선명하다.

◇ (수요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던 혼체들보다 뚜렷하고 선명하여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차원이 높은 혼체일수록 선명하다고** 말씀하시며 **200선 휴거에 오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주님과 혼체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9) 마음 상태를 통해 나타나는 혼체를 볼 수 있는 단계

◇ 섭리사 혼체를 보라 문을 열어 허락했는데, 보고 느낌에도 알지 못하고 느끼는 자들이 드물다. 또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단순한 꿈의 세계를 뛰어 넘어, 너의 마음 상태를 통해 나타나는 혼체의 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내 오늘 가르쳐 주겠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① 첫 번째 단계는 기도다.

◇ 혼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다. 섭리사 기도를 하는 자들을 보면 대다수 선생의 기도 방법을 모른 채 하고 있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㉕ 선생의 기도 방법의 첫 번째 원칙, 집중이다.

선생의 기도 방법의 첫 번째 원칙, 집중이다. 하지만 집중이라는 단어는 1차원적인 이야기이고, 이 집중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뇌를 풀고, 온갖 뇌 속에 파장을 하나로 모아 나 성자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 집중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의식치 않기 위해, 다른 생각과 복잡한 파장들을 기도 시간만큼은 자른다. 마치, 나 성자와 둘만의 공간에 있다 생각하며 머리로 생각들을 그리는 것이다.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기도를 통해 오직 나 성자와 구상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리는 것과 같다.

쉽게 이야기하여, 하나의 붓이 있는데, 이 붓을 나와 선생이 하나로 잡고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과 같다. 또 하나의 예는 나 성자가 그림을 그렸다 하자. 그 그림 그대로 선 따라 정확하게 그려 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그 그림은 하나의 그림이 되겠지. 나 성자가 그린 그림에 덧입혀 그림을 완성하였으니, 두 개의 그림이라 하지만 하나의 그림과 같은 께이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① 기도를 하다 보면, 복잡한 파장과 생각을 끊기 힘들 때 선생이 아주 잘하는 방법은 매 순간 기도를 할 때마다 나를 먼저 만나기 위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오직 내게 집중이 되고 나를 모실 때까지 부르고 부른다.

◇ (그런데요, 성자 주님!.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복잡한 파장과 생각을 끊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지. 선생이 아주 잘하는 것이 있다. 매 순간 기도를 할 때마다 나를 먼저는 만나기 위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오직 내게 집중이 되고, 나를 모실 때까지 부르고 부른다. 사람들은 그토록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은 채 쉽게 말을 한다. 한 나라 대통령 만나기 쉽더냐. 하물며 전능자를 만나는데, 어찌 그렇게 쉽게 만나려 하는지 모르겠구나. 선생이라고 나를 쉽게 만나는 줄 아느냐. 선생이라고 나와 일체 된 단계까지 올라오는데 쉽게 올라온 줄 아느냐. 절대 비약은 없다 하였다. 선생도 본인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친 만큼 올라오고 그만큼 나 또한 대해 줬음을 알아야 한다. 시대 사명자도 그렇게 몸부림쳐 올라와 나를 만났는데 너희 자신을 두고 생각을 해 보아라.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② 두 번째 단계

① (집중을 했다면) 대화의 소재가 중요하다. 네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집중을 이와 같이 했다면, 대화의 소재가 중요하다. 네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선생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 보면, 만약 제자들을 통해 들어온 문제가 있어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자. 그것을 어찌 표현할지 늘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자신의 표현을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 마음으로 그리며 대화한다. 그러니 나는 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② 성자 주님이 첫 번째 들어주는 원칙

; 진실성과 진심, 그 마음과 속을 다 본다.

◇ 내가 들어 주는 첫 번째 원칙, 진실성과 진심, 그 마음과 속을 다 본다. 즉 뇌 속의 그 상태를 점검하며 다 본단 말이다. 즉 마음은 뇌와 연결되어 있으니, 기도 속에 뇌를 점검하기가 너무 좋다. 진짜요 사실이기 때문이다. 말 이전에 마음을 보고 너희의 뇌 속에 들어 있는 하나하나의 생각들을 열어 보아 너의 말과 마음이 일체 된지를 확인하고 점검한 후, 그 기도를 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③ 혼체를 사용하는 것에 첫 번째가 기도라면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진리 속에 거하는 나 성자와 선생으로 봐야 한다.

◇ 혼체를 사용하는 것에 첫 번째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단순한 관념적인 진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거하는 나 성자와 선생으로 봐야 한다. 섭리사 병폐가 있다면, 그토록 말씀의 가치성에 대해 이야기했어도 이 말씀과 자신의 운명을 연결하여 애절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많지 않다. 휴거의 비밀은 말씀이라 했던만, 이를 빠져리게 알지 못하고 실천치 못하니, 느끼지 못한 채 진리의 성령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줘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은혜 받고 좋고 웃고 즐거워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섭리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 어찌 너희는 200선, 300선에 오를 수 있겠느냐.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결국 행하는 자, 하는 자만 오르는 것이 법칙이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③ 세 번째 단계

◇ 세 번째, 말을 하는 단계 속에,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자신의 말만 하는 자와 자신의 말과 함께 답을 기다리는 자, 내가 혼을 통해 말을 해 줘도 자기 주관에 강해서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들도 많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④ 기도시간을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시간을 보내니 그것이 문제다.

◇ 그런데 나 성자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해 줘도 중요한 것은 섭리사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 조는 자들도 많다. 기도 체질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 시간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기도 시간을 보내니 그것이 문제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⑤ 새벽을 깨우는 시간, 진정 나를 만나기 위해 사랑과 설렘으로 오는 자가 섭리사에 반도 안 된다.

◇ 새벽을 깨우는 시간, 진정 나를 만나기 위해 사랑과 설렘으로 오는 자가 섭리사에 반도

안 된다. 나를 만나기 위해 설렘으로 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기도의 완성,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다. 섭리사가 굳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다. 뇌가 굳어지듯, 새벽은 기도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일어날까? 피곤한데... 힘들게 여기며 기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들이 많지. 그 굳어진 생각을 풀어라. 그 생각을 풀면, 어느 때든지 진심의 기도 속에 나를 느끼고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랑아. 대다수 습관적, 형식적으로 눈을 뜨고 오는 자들이 많으니 본인이 휴거를 이루고 있어도 모르고 혼체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나와 통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㉔ 만남에는 법칙이 있는데, 서로가 만나길 원해야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애절하게 대할 때 만나게 된다.

◇ 만남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상실하는 자들이 많다. 관계의 법칙도, 만남의 법칙도 일맥상통하다. 결국 서로가 만나길 원해야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애절하게 대할 때, 관계성이 성립되는 것이 상식이요 기본임을 알아라. 알겠느냐? (아멘!)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10) 혼체 세계

① 혼의 세계는 깨달음으로 얹으로 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세계요, 또한 그로 인해 형성해 나가는 세계다.

◇ (세상에도 집념, 신념이 강하고 정신, 마음이 강한 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혼체는 어떨까요?) 그들은 아무리 생각이 강해도 혼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 혼의 세계는 깨달음으로, 얹으로 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세계요, 또한 그로 인해 형성해 나가는 세계인데 그들은, 혼계와 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완전한 혼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 정신, 마음이 강해도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니 형성되더라도 그 수준, 그 차원이다.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② 혼체의 세계는 누구나 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면 다 접할 수 있는 세계다.

◇ 혼체의 세계는 누구나 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면 다 접할 수 있는 세계이다. 나를 만나고 싶느냐? 나를 느끼고 싶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싶느냐? 나와 진정 일체 되고 싶느냐? 그리하면 실천하여 행하여라.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③ 혼체는 하나이지만 영에 속한 혼체와 육에 속한 혼체로 쪼갤 수 있다.

◇ 혼체는 마음, 정신, 생각이 합쳐져 더하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혼체는 하나이지만 영에 속한 혼체와 육에 속한 혼체로 쪼갤 수 있다. 마치 시간을 시, 분, 초로 쪼개듯, 사람은 하나인데 영, 혼, 육으로 쪼개듯 말이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㉗ **육적인 혼체란 짐승도 있는 것이니 별로 중요치 않다.**

◇ 이것(=육적인 혼체)은 짐승도 있는 것이니 별로 중요치 않다. 본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㉘ **영적인 혼체는 영의 세계의 바로 밑 단계인 혼의 세계에 거한다.**

◇ 이 영적인 혼체는 영의 세계의 바로 밑 단계인 혼의 세계에 거한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㉙ **(영적인) 혼의 세계에는 말씀과 기도와 명상으로 거할 수 있다.**

◇ 이 혼의 세계에 어떻게 거하나? **말씀과 기도다, 명상이다.**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100% 하지 못하니 혼체와 혼계를 잘 모르고 어려워한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④ **지상 영계와 혼체 세계는 동일한 세계인가요?**

◇ (아멘! 주님. 말씀에 장례식장에 가면 혼체도 보이고 영체도 보인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꿈에도 영체가 보이구요. 그럼 지상 영계와 혼체 세계는 동일한 세계인가요?) 사랑아. 잘 보아라. 앞서 혼체의 세계는 영과 육이 반영된 세계라 하였다. 그리하면 혼체의 세계에 나타난 영이 그 영 자체이겠느냐 아니면, 그 반영체이겠느냐? (반영체인 거 같아요?) 맞다. 그러니 제대로 깨달아라. 지상 영계와 혼체 세계가 섞인 것이 아니다. 각각 다른 차원의 존재 세계이다. 부흥강사를, 꿈의 이야기를 들었지? 사탄, 귀신의 목을 잘랐다 했다. 그러니 그 실상을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반영체가 곧 실상의 세계가 된다. 육의 반영체가 정신이라 했고, 그 실상이 혼체라 함을 기억하느냐? 그 정신이 죽으면 육이 어찌 되느냐? (육이 제 기능을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 사랑아. 이와 마찬가지로, 영도 그 혼체의 실상을 반영한다. 영이 죽느냐?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니, 그 실상이 혼체를 통해 반영되어 보여 준 것이다. 혼체의 세계에서 보는 것은 혼체이다. 혼체가 영체와 결합되어 보는 것은 영체이다. 깨달았지? 그럼 행하여라.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11) 혼적 세계

①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맞춰지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에

선연히 들려오게 되는데 이를 혼적단계라 한다.

◇ 기도를 깊이 하여 혼적 단계에 들어가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맞춰지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에 선연히 들려온다. 그 단계가 혼적 단계인데,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② 혼적세계도 몇 십만 층의 단계가 존재한다.

◇ 선생이 천국을 천층 만층 구만층이라고 했듯 이 혼적 세계에서도 몇 십만 층의 단계가 존재한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 **자신이 기도로 집중할수록 그 단계가 올라가고**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 **나를 깊이 만날수록 몇 십 층씩 쭉쭉 건너 올라오게 된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 **혼적 세계 가장 윗 단계가 영적 세계와 닿아 있는 부분이며 그 곳을 지나면 곧바로 영적인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 나와 대화하는 거의 모든 단계는 혼적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혼적 단계도 하나의 세계처럼 이해하면 되는데 이곳(=혼적단계)에서도 단계별로, 또 개인의 차원별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깊이별로 거하는 위치가 다르다. 다른 사람의 혼과 만나기도 하며, 상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③ 혼적단계는 눈뜨고 생활할 때 거하는 혼적단계와 눈을 감고 잠을 자며 거하는 혼적단계로 나뉜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 어느 것이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생활 속에서 혼적 단계로 살면 마음과 정신 생각이 그 단계에 가 있기에 잠을 자면서는 당연히 혼적 단계에 몰입하기가 쉽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 **혼적 단계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의 단계에서 나 성자 예수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 각자 만나는 나의 느낌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대화의 수준도 다르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 **자신이 집중함으로 더 높은 혼적 단계에 들어가면** 나 성자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 세계로 나의 마음이 선연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세상에서 상대에 집중하여 그의 심정과 마음을 느끼듯이, 말씀을 통해 나와 네 선생을 느끼듯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를 느낄

수 있게 된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㉔ **더 높은 자원으로 올라가 영적 단계에 가면** 자신의 영을 보기도 하며 만지기도 하며 직접 영으로 체험하기도 한다. 나 성자와 성령님, 하늘의 하나님도 느낄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간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④ 혼적 단계에서 ㉓ 개인의 모든 상황이 보이기도 하고 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보이기도 하며 ㉔ 자신의 정신의 반영이기에 자신의 정신이 보이기도 한다.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⑤ **자신을 만든 만큼 자신의 혼체의 수준만큼 혼적세계에서 자신의 혼도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

◇ 그리하여 자신을 만든 만큼, 자신의 혼체의 수준만큼 그 혼적 세계에서 자신의 혼도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⑥ **혼적 세계에서 보면 네 정신적 수준과 행함의 수준이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

◇ 육적 세계보다 또렷하여 마치 네 혼체를 보듯이 혼적 세계에서 보면 네 정신적 수준과 행함의 수준이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⑦ **혼적 세계에서 성자도 선생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

◇ 이곳(=혼적세계)에서 나 성자도 육적 세계보다 또렷하게 만날 수 있으며 선생도 혼체로 활동하고 있기에 선생도 보다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 너, 내가 선생 만나는 훈련시키고 있지?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12) 혼체 성장(=형성)

① **왜 혼체를 발달시키라고 하나.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혼체를 발달시켜야 한다.**

◇ 왜 혼체를 발달시키라고 하나.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선생과 만나면 선생이 직접 교육해 줄게. 네 정신을 바꿔 줄게. 나를 확실히 아는 만큼 나도 그를 확실히 대한다. 성자 주님도 만나요. 안녕.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 온전한 마음, 정신, 생각을 반복하여 만들어서 혼체가 되는 차원까지 올라와라.

◇ 온전한 마음, 정신, 생각을 반복하여 만들어서 혼체가 되는 차원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 정신,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 정신, 생각이 나 전능자와 다르다면 너희의 것을 버리고 나 전능자의 생각을 넣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너희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만드는 대로 혼체가 변화된다. 매일, 매 순간, 지금 변화됨을 잊지 말아라. (20130609 육신의 행함이 보이는 혼체이며 영체다. 그 혼체의 차원이 구원의 차원이다.)

㉡ 혼체의 말씀은 너희를 휴거로 이끌어 주며 영을 완성하는 열쇠이며 천만금과 같은 말씀이다.

◇ 혼체의 말씀은 너희를 휴거로 이끌어 주며 영을 완성하는 열쇠이며 천만금과 같은 말씀이니, 목숨같이 여기고 깨닫고 행하길 바란다. (20130706 혼체로 사랑과 소통의 문을 열이라 - 정초연)

㉢ 혼체를 발달시키는 영체를 함께 발달시키고 같고 휴거의 영을 이룰 수 있다.

◇ 영의 세계의 밑이 바로 혼의 세계라고 했지? 그 말인즉슨 이 혼체가 영체와 영계에 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혼체를 발달시키는 영체를 함께 발달시키고 같고 휴거의 영을 이룰 수 있음이니라.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 혼체를 온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육신을 통해서 하늘의 것, 말씀을 들음으로 봄으로 행함으로 네 마음, 정신, 생각을 완벽하게 만들면 된다.

◇ 너무 간단하고 쉽다. 육신을 통해서 네 마음, 정신, 생각을 완벽하게 만들면 된다. 완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세계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하늘의 것, 말씀을 들음으로 봄으로 행함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 오직 말씀으로만 네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혼체를 기도함으로써 성장시켜서 완성시키는 것이다. (20121218 혼체를 통해 완벽한 영체로 부활하여라 - 정빛별)

㉤ 육에 속한 혼체는 너희가 마음 정신 생각을 작동할 때 임의로 형성 된다.

◇ 물론 혼은 하나이고 쪼개기 애매한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육에 속한 혼체는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 정신, 생각을 작동하였을 때 임의로 형성되기에 쪼개서 이야기해 주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서두에 쪼갬노라.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 **육에 속한 혼체를 임의로 형성하는 예화 1(육적인 혼체)**

◇ 예를 들어 줄게.

네가 육에 속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너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냐. 눈을 감아 보아라. 눈을 감고 너 자신을 생각해 보아라. 너의 모습이 보이느냐. 거기서 네가 갈아입고 싶은 옷으로 갈아입어 보아라. 갈아입혀졌느냐? 또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

그래, 맞다. 그것이 바로 **네가 임의로 형성한 육적인 혼체이고 혼체니라**.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 그러나 원래는 육적인 혼뿐이다. 즉 네가 배고프다 하면 그 배고픈 생각이 나지 않느냐. 즉 육에 속한 것은 그냥 마음, 정신, 생각인데 너희가 무엇을 먹는 상상을 하거나 어디를 가는 상상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너희가 형성한 육적인 혼체라는 것이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 **영적인 혼체는 영적인 행실과 생각 (즉, 기도, 말씀, 진리, 성령, 사랑)으로 나 자와의 소통으로 형성된다.**

◇ 영적인 혼체는 영적인 행실과 생각 (즉 기도, 말씀, 진리, 성령, 사랑)으로 나 성자와의 소통으로 형성된다. 그러니 너희는 늘 영적인 혼체의 형성과 영적인 혼체에 대해 기도하여라.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 **말씀을 실천하여 이루었을 때, 그것이 혼체로 형성된다.**

◇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만 하더냐.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실천에 실천, 선생처럼 몇 백 번씩 물어 가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가며 이루었을 때 그것이 혼체로 형성된다**. 보통 인생들은 이 과정을 쉽게 포기하고 힘들어하여 혼체가 형성되다 만다. 다시 마음, 정신, 생각이 육적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130609 육신의 행함이 보이는 혼체이며 영체다. 그 혼체의 차원이 구원의 차원이다.)

㉣ **너희는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 정신, 생각을 온전히 하여, 온전한 혼체를 형성해야 된다.**

◇ 이따로 너희는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 정신, 생각을 온전히 하여, 온전한 혼체를 형성해야 된다. 고로 이를 통해 성삼위의 영과 사랑을 너로 제대로 전달받아, 뜨거운 사랑을 교감하며 나눌 수 있게 된다. 곧 이를 통해 절대 불변의 법칙인 너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기에, 마침내 영혼육이 온전한 신부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20130606 너 사랑이란

영계 파장의 사랑이다. - 이주인)

㉞ **선생 혼체로 만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혼체가 빨리 변화되고 직접 교육 받는 것이 되고 직접 면담하는 것이 되어 네 생각과 마음이 단단해진다.**

◇ 선생 혼체로 만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혼체가 빨리 변화되고 직접 교육 받는 것이 되고 직접 면담하는 것이 되어 네 생각과 마음이 단단해진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항상 생각하고 혼체의 변화에 힘써라. 그래야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나 성자가 생각나고 네 선생이 생각난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㉟ **선생의 혼체를 자주 만나라 함은 아직 너의 수준이지만 완전한 혼체의 느낌을 알라 함이며 완전한 혼체와 대화함으로 너의 혼적 지적 수준을 높이라 함이다.**

◇ 표상이 있다. 선생의 혼체다. 선생의 혼체를 자주 만나라 함은, 아직 너의 수준이지만 완전한 혼체의 느낌을 알라 함이며 완전한 혼체와 대화함으로 너의 혼적 지적 수준을 높이라 함이다. 영계에서 차원을 높여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높이겠느냐. 선생 한 번 만나는 것이 크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㊱ **선생을 깨닫는 만큼 혼체가 변화되며 완전해진다. 그를 아는 것이다.**

◇ 선생도 그러하리라. 더 차원 높게, 더 많은 자들이 그를 그리워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당세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를 제대로 깨닫기에 힘쓰라. 깨닫는 만큼 혼체가 변화되며 완전해진다. 그를 아는 것이다. 모르면 휴거 안 된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㊲ **혼체가 성장하는 데 성령은 큰 도움이 된다.**

◇ 요새 성령의 역사가 더욱 불타오르는 이유가 왜인 줄 아느냐? 바로 이 혼체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혼체가 성장하는 데 성령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성령은 영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진 육체와 혼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니라. 다들 성령 받자. 꼭 나와 그 나라 와서 함께 살기다. 알겠지? 낙심하지 말고 사랑해.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㊳ **혼체가 형성되기 좋은 때**

㊴ **새벽은 혼계가 열리기 때문에 혼체가 형성되기 너무 좋은 시간대이다.**

◇ 너희에게 이렇게 있으니, 혼체가 형성되기 좋은 때가 있다. 바로 새벽이다. 너희 육이 잠잘 때 혼계가 열린다고 했지? 것처럼 새벽은 세상과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니 혼계가 열

리고, 혼체가 형성되기 너무 좋은 시간대이다. 그래서(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grids도 말했노라.

㉔ **기도 할 때 혼체가 형성되기 좋은 시간 대이다.**

◇ 또 좋은 때는 **기도할 때**이다.

㉕ 기도할 때는 육에 속한 너희 육이 기도하지만, 실상은 너희의 혼체가 너희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㉖ 너희가 기도하는 안전에 대하여 혼계를 돌아다니며 혼체가 처리한다. 즉 육이 하지 못한 일을 기도함으로 혼체가 하니 혼체가 더욱 형성됨이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④ **혼체 형성에 쉽게 이르는 방법**

㉗ **너희가 상상하는 육적인 혼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 너희가 임의로 육의 혼체를 형성한다는 말을 앞에서 알려 줬지? 이 말은 너희가 상상하는 세계를 말하노라. 너희가 하는 상상은 육적인 혼계니라.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㉘ **육적인 혼체를 형성하며 사용하리라.**

◇ 육적인 혼체와 영적인 혼체를 쪼갰지만 하나이듯이 결국 육의 혼체로 임의로 나 성자나 선생을 만나는 상상으로 육적인 혼계를 만들면 결국엔 너희의 영적인 혼체가 작동하여 나와 선생을 직접 만나는 것이며 혼체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육적인 혼체를 형성하여 사용하리라.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㉙ **말씀에 순간순간 육의 행실과 생각에 따라 혼체가 바뀐다.**

◇ 말씀에 순간순간 육의 행실과 생각에 따라 혼체가 바뀐다고 하였지? 이것이 즉 육적인 혼체와 혼계의 형성으로 즉시 영적인 혼체로 연결되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적인 혼체와 영적인 혼체와 혼계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육에 속한 너희이기에 이해하기 쉬우라고 쪼개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13) 혼체는 무엇으로 보는 걸까요?

① 욕신이 눈을 감아도 욕신에 속한 정신으로 네 혼체를 봄이 맞다.

◇ 사랑아. 인식을 달리하여라. 영계의 세계는 관을 바꾸고 인식을 정확히 해야 보이며 정확히 쫓아야 한다. 눈을 뜨면 욕계가 보이며, 눈을 감으면 욕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욕의 이치이다. 정신, 마음, 생각의 눈을 감으면 영계가 보이지 않으며, 정신, 마음, 생각의 눈을 뜨면 그 세계가 보이는 것이다. 이는 네 생각과 관의 눈을 뜨라는 것이다. 너희는 네 생각대로 듣고, 판단하지 않느냐? 그러하기에 영의 세계는 네 의지로 보려 한다고 해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물을 볼 수 있으며, 불이 있는 곳에 가야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네 의지로 상상한다고 해서 보고, 느끼는 것은 네 생각의 1차원적 세계이다. 그러니, 네가 보고 들으려면, 그에 해당되는 영계의 차원에 가야 하는 것이다. 사랑아. 말씀에 선포한 그대로임을 알아라. 마음, 정신, 생각은 혼체와 다르며 분리가 된 세계이다. 마음, 정신, 생각은 욕에 속한 세계이며 혼은 이것보다 영에 속한 세계이다. 그러니, 욕신이 눈을 감아도 욕신에 속한 정신으로 네 혼체를 봄이 맞다.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② 혼체를 보려면 욕신을 잘 살펴보아라.

◇ 너희가 죽으면 혼체가 영에 흡수되어 영과 하나 되어 살지만 지금은 너희의 욕에 속해 사니 너희가 혼체를 보려면 욕신을 잘 살펴보아라.’ 하였고, 이어서 더 말씀하셨습니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혼체는 너희 살아 있는 때에는 욕신에게 포함되어 있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혼체의 모습도 생각도 근본도 다 욕신이랑 닮아있다.

◇ 살아 있을 때 아무리 혼체가 차원을 높여도, 스스로 혼자 자유롭게 움직여도, 너희의 욕신을 떠나서 살지는 않는다. 모습도, 생각도, 근본도 다 욕신이랑 닮아 있다. 왜? 너의 움직임의 결과로 혼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너가 발동하면 욕체를 움직이듯이, 너가 발동돼서 생각이 형성되면 혼체도 함께 움직인다. 즉, 혼체가 욕체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다는 말이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 3차원 세계에서 혼체는 욕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면 혼체를 볼 수 있다.

◇ 혼체로 보고 싶으냐. 거울을 자세히 보아라. 너희의 마음에 묻은 모순과 더러움도 말씀의 거울로 자세히 보아라. 3차원 세계에서 혼체는 욕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면 혼체를 볼 수 있다. 다들 자신의 혼체를 보고 싶어 하니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

14) 잠을 잘 때 혼체가 육과 분리된다.

◇ (제가 체험했던 신비한 체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현상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또 생각이 나면서 주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체험은 작년 말부터 있었던 체험이었는데, 제가 잠을 잘 때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깨어지면서 육은 누워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또 다른 제가 발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상을 유체이탈 현상으로 알고 주님을 찾았고 다시 제 몸으로 돌아오곤 하는 경험 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몸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과 혼체 이야기를 하고 또 교역자님과 이야기해 보니 혼체가 꿈에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돌아다닌다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혹시 혼적인 혼체의 현상인가?’ 하고 위로 들려 올라갈 때 팔을 위로 뻗으니 제 혼체가 날아서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보고 여러 행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 몸으로 혼체가 숨 들어왔고, 혼체가 육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속에서는 혼체가 열린다.”** 그랬을 때 혼체는 네 몸에 거하면서 뇌의 수수작용으로 대부분 꿈을 통해 보인다. 그런데 네가 한 경험은 특이하고 특별한 경험으로 내가 이 계시를 주기 위해 경험하게 해 준 것이다. 즉 **잠을 잘 때 혼체가 육과 분리됨을 알려 준 것이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① **네 몸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육신이 잠이 들었고, 혼적인 자원과 혼계의 체험이므로 육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② **그렇게 혼체를 이용해서 영계에 갈 수 있음을 알린 것이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③ **앞으로 선생과 나 성자를 실제로 혼체로 만날 수 있음이다.** 진실로 그런 세계가 있다고 진실로 보여 주기 위함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④ **육계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혼계에서 해서 휴거를 이루라 함이며**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⑤ **혼체가 한 것은 육과 영이 한 것이 되어 영으로 이어진다 함을 알려 주기 위해 알렸노라.**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⑥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흔하게 될 것이다.

◇ 너희도 기도와 간구로 나아오라.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흔하게 될 것이다. 왜냐고?

지금 영 휴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휴거되면 영과 육을 이어 주는 매개체인 혼체의 역할이 커지고 실질적으로도 네 영이 너의 혼체를 쓰고 너를 돕기 때문이다. 엄청나지? 다들 혼적 수준과 혼적 차원을 높여라. 더욱더. 조금 더 해. 그리고 선생이 돌을 찾은 일화를 기억하느냐. 선생이 선생의 혼체를 시켜 강한 차돌의 사람 얼굴 모양의 돌을 사진부 제자들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나. 내가 바로 이 혼체 때문에 선생 통해 말하고 말씀 나오게 한 것이다. 선생의 혼체는 이미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육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선생이 너희의 표상이 아니냐.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 혼체를 발달시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 이런 계시도 다 혼적 차원 높아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육적이라서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섭리사에서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혼체와 혼계에 대해 밝히 일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중 아무나 합당한 조건 위에 내가 역사한다.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술)

15) 혼체를 사용하여 전도하여 생명을 관리하라.

◇ 혼체를 사용하여 전도하여 생명을 관리하라 함이다.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① 생명을 24시간 관리하려면 네 혼체를 강하게 힘 있게 빠르게 만들어라.

◇ 그러려면(생명을 24시간 관리하려면) 먼저 네 혼체를 더 온전히 만들어야 한다. 혼체를 강하게, 힘 있게, 빠르게 만들어라.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 ‘혼체를 강하게 만든다.’ 함은 너의 혼체가 나와 선생의 혼체를 진실로 믿고 부르고 찾으라는 것이다.

◇ 혼체를 강하게 만든다 함은 나 성자와 내 분체와 완전한 일체다. ‘함께’ 라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생각의 본체가 혼체라 하였지? ‘함께’ 라는 생각이, 너의 혼체가 나와 선생의 혼체와 함께한다는 것으로 이어짐을 잊지 말아라. 중요한 말이다. 너희 스스로는 약하다 나와 함께하면 강하다. 늘 불려라. 부르면 간다. 진실로 믿고 부르고 찾아라. 이것은 일체의 비밀이다. 함께함의 힌트다.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 ‘혼체를 힘있게 만든다.’ 함은 성자의 사랑과 진리의 힘이다.

◇ 혼체를 힘 있게 만들어라 함은 오직 나 성자의 사랑과 진리의 힘이다. 너희는 무엇으로 힘을 받느냐. 나 성자로 인한 힘ियो, 그 능력이 힘이 되어 너희를 살리지 않느냐. 선생이 너희에게 주는 힘도 사랑의 힘이고, 진리의 힘이다. 무한하고 영원하다. 힘 있게 혼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사탄도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감히 가까이 범접하지 못한다. 또한 사랑은 무한한 힘을 솟구치게 만들고, 이 시대 진리는 성삼위의 뜻을 이루게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힘이다. 힘을 받아라. 혼체를 힘 있게 만들자.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㉔ **‘빠르다.’ 함은 네 기도로 성자의 능력을 받는다 함이다.**

◇ 사랑아. 빠르다 함이 무엇이나. 기도의 능력으로 속력을 낸다 함이다. 네 기도로 나 성자의 능력을 받는다 함이다. 기도는 이때에 급히 너를 통해 내가 행할 일들과 네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해주니 네가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되니 쉽고 얼마나 빠르게 나의 몸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라. 수시로 기도하여라. 기도로 나에게 간구하여라.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㉕ **혼체가 이 세 가지로 강하고, 힘 있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지면, 너의 제 2의 몸이 되어 행할 수 있고 낮에도 밤에도 수시로 행하며 너의 욕을 돕고 함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라. 욕신을 통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혼체가 그리도 강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㉖ **혼체의 능력을 길러 혼체를 사용하여 생명을 잡아 나가는 것이다.**

◇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나. 나의 몸이 되어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나. 진정 아는 자는 쉬지 않는다. 역사를 달릴 것이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생명을 잡아 나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최첨단의 방법이, 바로 선생이 밝혀 준 **혼체의 능력을 길러 혼체를 사용하여 생명을 잡아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자. 계속 씹어라. 다스리고 부리는 만큼 너와 나와 네 선생에게 유익이다. 모르면 못한다. 알면 누리는 것이다. 알겠지? 진정 행하여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 못 다한 말, 이제부터 혼체를 씹고 또 혼체를 더욱 만들어 행하는 자에게 더 가르쳐 주겠다. 나 성자가 진정으로 역사하리라.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② **마음·생각·폰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낮에도 밤에도 수시로 네 혼체를 보내어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다.**

◇ 욕으로만 지금껏 뛰어왔다면, 이제는 너희 혼체를 더욱 씹라. 한 겹줄보다 두 겹줄이다. 더 강하게 생명을 잡을 수 있다. 생명의 혼을 잡아야 한다. 마음이 돌아오게 하고 생각이 돌아오게 하고 혼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바로 낮에도 밤에도 수시로 네 혼체를 보내어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미가 새끼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듯이 혼체를 통해서 생명을 24시

간 관리다.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 **혼체를 사용하여 생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탄이 마음·생각·혼을 쳐서 마음이 식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혼체를 사용하여 생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육만으로는 불가능한 때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생명들의 몸을 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에 육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환경과 입장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마음을 치고, 생각을 치고, 결국 혼을 치는 것이다. 혼과 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이 식으면 불가능하고 어려워도 한다. 시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 **지금은 영적인 시대다. 선생님을 영으로 혼으로 만나야 그의 생각을 알고 그의 느낌대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관리할 수 있다.**

◇ 나 성자 부르고 만나는 것도 자꾸 혼련이듯, 선생과 만나는 것도 혼련이다. 전반기 때 선생과 육으로 만나고, 지금 편지로만 만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영적인 시대다. 고로 그를 영으로, 혼으로 만나야 그의 생각을 알고 그의 느낌대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관리할 수 있다. 너희가 선생과 혼으로 통하지 않으면, 네가 관리하는 생명이 선생과 혼체로 더 잘 통하여 네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그를 통해 너를 관리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모두 선생과 혼체로 통해야 해. 이것의 중요성은 말할 해도 끝이 없다.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휴거 안 된 자가 휴거된 자 관리할 수 있겠느냐. 육적 관리는 육적 관리일 뿐, 근본적인 영적 관리 하지 못한다.**

◇ 휴거 안 된 자가 휴거된 자 관리할 수 있겠느냐. 육적 관리는 육적 관리일 뿐, 근본적인 영적 관리 하지 못한다. 이처럼 선생과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자가 선생과 혼체로 교통하며, 늘 통하는 자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려고 해도 선생과의 느낌이 없고, 영력이 없어서 안 된다. 오히려 어린 자들에게 관리 당하지. 그러니 진실로 이때, 기회를 주었을 때, 모두가 할 수 있을 때, 빨리 선생과 혼체로 통하여 길을 내어 놓고, 자유롭게 선생과 이야기하자.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16) 혼체 일반

㉣ **육보다 보이지 않는 영, 혼, 마음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한다.**

◇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해 줄게. 이를 통해 보이는 육보다 보이지 않는 영, 혼, 마음

을 중심한 삶을 살아. 물론 육의 행실을 통해 너의 마음, 정신, 생각, 혼체, 영체가 형성된다. 그러나 섭리사에 자꾸만 육의 행실을 강조하는 말씀을 잘못 인식해 그만 ‘육적인 삶이 영을 위한 삶보다 중요하구나.’하는 착각 속에 빠져 버린 신부들이 아주 많다. 그것이 아냐. 원 출발점부터 봐야지. 근본을 봐야지. (20130908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와의 관계성 - 이선진)

㉠ **먼저는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생각, 혼체, 영체가 중하며 이 존재들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에야 보이는 육이며 육의 세계이다.**

◇ 너희가 육으로 태어나 육의 행실을 하기 전 이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나 성자다. 그리고 각 시대급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길러 보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전능자 성삼위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영물인 루시퍼에게 꼬임을 받은 후에 타락을 하였느냐, 아니면 타락을 한 후에 꼬임을 받았느냐. 영물인 루시퍼의 꼬임을 받은 후에 타락한 것이다. 또한 너희는 작고 큰 육의 행실을 할 때 먼저 그 행실을 할 것을 마음속으로 계획, 구상한 후에 행하느냐 아니면 행하고 나서 그 행실에 대해 계획, 구상하느냐. 먼저는 바로 마음속 계획과 구상이 아니냐. 이와 같이 먼저는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생각, 혼체, 영체가 중하며 이 존재들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에야 보이는 육이며 육의 세계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생각, 혼체, 영체가 ‘주체’이며 ‘근본 핵심체’이다. 보이는 육과 육의 세계는 ‘이 주체들로 인한 결과체’이다. 실제 육으로 하는 행함은 ‘보이지 않는 주체들의 행함의 반응’에 불과하다. 현재 육계의 각종 모습들도 그 반응과 반응들이 모이고 모여 육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일 뿐이다. (20130908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와의 관계성 - 이선진)

㉡ **진정으로 중심해야 할 건 육 자체가 아니라 육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생각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혼체, 그리고 영체이다.**

◇ 성삼위께서는 이 땅 위의 인간들 모두에게 신의 생각, 뜻, 마음을 각종 계시, 꿈, 감동 등으로 주신다. 그러면 그것이 각자의 혼체, 마음, 정신, 생각의 수준, 그릇에 따라 담겨서 그대로 행한다. 그러나 제대로 그 그릇이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의 수준대로만 행하거나 혹은 그 그릇이 악하고 불의하면 사탄이 주는 감동을 받아 그대로 행한다. 이러하니 내가 실제 육의 행실로 너희의 영이 변화된다는 휴거의 원리를 강조하여 말하였어도 이 말의 의도는 ‘보이는 육 자체를 더욱 중심해라.’가 아니었다. 너희가 인식관을 고쳐 진정으로 중심해야 할 건 육 자체가 아니라 육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생각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혼체, 그리고 영체이다. 알겠느냐. 육신의 행함부터 나오는 게 아냐. 바로 각자마다 수준이 다른, 보이지 않는 이 존재들로부터 출발하여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바로 ‘육신의 행함’이다. 상대부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먼저는 ‘주체’부터 신경 쓰고 집중하는 것이야. 결과만 생각한다고 이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냐.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각종 재료들’과 ‘과정’을 하나하나 신경 써야 아주 이상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육의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고 육의 건강, 편안함, 장수, 즐거움을 나와의 사랑의 삶, 자신의 영체를 휴거의 영체로 만드는 것보다 중시하지는 말아라. 오히려 육의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할수록 진짜 중요해지는 건 바로 육의 행함을 일으키는 주체인 ‘영체, 혼체, 마음, 정신, 생각’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이 주체들을 상대인 보이는 육보다 더 중시하고 관리하여라. (20130908 마

음, 정신, 생각과 혼체와의 관계성 - 이선진)

②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된 혼체는, 육체의 행위를 온전하게 주관할 수 있다.**

◇ 그렇지만 이러한 혼체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된 혼체는, 육체의 행위를 온전하게 주관할 수 있다. 고로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된 혼체는, 육체의 행위를 온전하게 함으로 마침내 온전한 영체로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 (20130606 너 사랑이란 영계 파장의 사랑이다. - 이주인)

㉠ **혼체가 잘 성장되고 유지되면 혼체가 육체를 다스려서 혼체의 뜻대로, 즉, 마음대로, 생각대로, 정신대로 육체가 행하도록 주관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 인간은 자기 육체도, 영체도 온전히 주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마음, 생각, 정신은 주관할 수 있다. 그래서 혼체가 중요한 것이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③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혼체를 이용해서 점검해 보아라.**

◇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혼체를 이용해서 점검해 보아라. 그러나 분별 잘해야 한다. 무조건 꿈이라고 해서 다 너희의 혼적 체험이 아니고 너희의 신앙이 아니다. 너희의 주관 꿈일 때가 많다. 꿈에도 차원이 있음이다. 이제 혼체에 대해 조금 이해가 가느냐.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 **너희의 행위와 신앙을 알고 싶으면 꿈속의 네 모습을 봐라.**

◇ 혼계는 육계의 생활이 옮겨진다. 그렇기에 꿈에서는 너희의 행위를 혼계에서 보여 준다. 있었던 일들이 혼계에서의 일로 비춰지기도 하며 앞으로의 일로 비춰지기도 한다. 앞으로의 일은 내가 또는 너희를 지켜 주는 천사가 계시해 주어 혼계에서 꿈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의 행위와 신앙을 알고 싶으면 꿈속의 네 모습을 봐라. 가끔은 비유로 나타나니 잘 풀어라. (20131030 혼체, 육체, 영체로 세 겹줄이며 하나이다 - 이윤주)

㉢ **각종 기도, 꿈 통해 보게 되는 혼체의 활동, 계시를 눈에 보이는 황금, 다이아몬드, 돈보다 귀중히 여겨 꼭 기도로 풀어 응답받고 잘 행하여라.**

◇ 고로 이 주체들을 최고로 성장, 변화시켜 주는 ‘이 시대 휴거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중시하고 또 중시하며 그대로 행하여라. 또한 ‘보이지 않는 혼적 세계에서만 끝나는 것이다.’ 생각 말고 각종 기도, 꿈 통해 보게 되는 혼체의 활동, 계시를 눈에 보이는 황금, 다이아몬드, 돈보다 귀중히 여겨 꼭 기도로 풀어 응답받고 잘 행하여라. 거기에다 더욱 차원 높여 혼

체로 너의 영체까지 직접 볼 수 있는 수준을 목표 삼아 오르고 또 올라라. 알겠지. 이같이 영 휴거, 구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금은보화와도 같은 ‘혼체’이기에 선생에게 수십 년 연구하게 하여 바로 이 황금 같은 휴거의 시기에 너희에게 풀어 놓게 한 것이다. (20130908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와의 관계성 - 이선진)

㉔ 혼체로 나 성자를 만나고, 네 자신의 영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자도 꿈을 꾸고 혼체를 못 보는 이유는?

㉔ 그것은 너희의 뇌에 그것은 처음 받아들이는 생각으로서 아직 네 뇌에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되었고, 반복적인 기억을 하지 않았음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그렇다.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㉔ 말씀을 다시 보고, 생각을 강하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혼체에게 시키고 나 성자와 대화하면 반드시 가능하다. (20130705 뇌의 그림 - 정별해)

④ 육신이 기도하면 혼체가 환상을 볼 수 있으며, 혼체가 생각을 하면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혼체가 생각을 하면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 다니엘의 육신이 기도하니 혼체가 환상을 보았고 혼체가 생각하니 대상에 대해 더 세밀히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상대방의 생각을 깨닫는 혼통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나 성자와 선생과 만나 대화한다. 계시는 상대방의 생각을 깨닫는 것이다. (20130906 혼통하여 계시 받아라 - 장정희)

㉕ 혼체가 간구하는 대상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혼통이다.(다니엘 선지자)

◇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열렬한 사랑을 가져 선지자가 되었다. 고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재건을 꿈꾸었던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였다.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정신의 주인인 혼체가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저버린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다. 혼통한 것이다. 그래서 혼체가, 간구하는 대상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혼통이다. 일치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니엘서를 받았다. 다니엘의 혼체가 환상을 보고 생각하니 환상을 더 세밀하게 보게 되었고 비유임을 깨닫게 되었다. (20130906 혼통하여 계시 받아라 - 장정희)

⑤ 혼체로서 할 수 있는 영계체험

◇ 먼저는 육적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지. 그러다 육으로 오직 나에게 집중하여 신령한 기도를 하면 마음, 정신, 생각이 영적 초자연 현상으로 혼체로 형성, 변화된다. 그리고 그 혼체로 각종 혼적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상 영계를 실제로 견학하여 그 안의 선영계, 악영계를 본다.

이때 지상 영계에서는 육이 산 자의 영, 육이 죽은 자의 영 둘 다 보게 돼. 그리고 더욱더 나에게 집중하여 들어오면 그 혼체에게 자기 영체를 보여 주거나 실제 지상영계보다 더 차원 높은 영체인 천국, 낙원, 지옥 영계의 모습을 마치 TV를 틀어 보여 주듯 보여 준다. (20130908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와의 관계성 - 이선진)

⑥ 자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기도는 열심히 하나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 자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기도는 열심히 하나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더 집중하여라. 기도보다 나의 마음에 집중하여라. 내가 반드시 가서 역사하니 깨어 나를 맞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졸지 말자. 졸음은 자신의 문제다.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어 졸 수 있으나 자신과 싸워 정신을 총명하게 하고 또렷하게 나를 찾아라. 절대 정신에 절대 만남이다. 충분히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힘들면 자신이 졸지 않도록 생활을 조절하여라. 졸면, 나를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혼적 단계 초입에도 들어갈 수 없다. 맑고 또렷한 정신은 기본이다. 여기에 회개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더 높은 단계의 혼적 차원에 머물 수 있다.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가 혼체이니까.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⑦ 상징체와 혼체의 자이는 무엇일까?

◇ (사랑하는 주님, **상징체와 혼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혼체는 그래도 주님의 마음, 정신, 생각의 실체이니 무언가 실제적인 존재 같은데 ‘상징체’는 무언가 허상적인 존재 같아요.) **‘상징체’도 실상은**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픈 내 생각, 마음이 반영되어 있으니 나의 혼체를 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혼체를 본 것보다는 낮은 단계의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지. 보다 더 깊이 들어오면 각자의 의지, 생각을 다 뺀 순도 100%의 나의 혼체를 볼 수 있다. 이마저도 내가 각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 다르니 달리 보일 것이야.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 예화1

만약에 어떤 자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그에게 어서 회개하라는 심정을 보내겠지. 이때 그가 기도로, 꿈으로 보다 깊이 들어와 나의 혼체를 보게 된다면 나는 그를 보며 울고 있거나 혹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겠지.

이와 같다. 각자의 상태와 수준도 다 다르고 각자에게 보내는 나의 심정도 다 다르니 각자에게 보이는 나의 혼체의 모습도 모두 다를 것이다.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 예화2

전에 선생님 꿈에 **주님께서 몸매 바지를 입은 땅 부자 아주머니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이것도 주님의 혼체를 선생님에게 보여 주신 것이었죠?

그래, 맞단다.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㉔ 예화3

(주님, 최근에 선생님이 만나야 할 섭리인,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섭리인들에게 선생님의 혼체가 가서 만나 주고 면담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도 각자에게 전달하고픈 선생님의 심정, 마음, 생각이 다를 테니 그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이겠네요?)

그렇지. 어떤 자에게는 웃는 선생으로, 또 어떤 자에게는 울고 있는 선생으로 각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 심정 따라 달리 보일 것이야.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⑧ 혼체와 일체되는 법

㉑ **선생처럼 마음, 정신, 생각의 주인이 나 성자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선생의 혼체와 일체된다.**

◇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혼체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혼체의 구성원인 너희 정신, 마음, 생각을 나 성자에게 맡겨라. 선생처럼 마음, 정신, 생각의 주인이 나 성자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혼체가 선생의 혼체 단계가 된다. 선생의 혼체와 일체 된다는 것이다. 선생의 혼체와 일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정신 중 최고의 정신인 선생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니 이것이 너희 인생 최고 목표다. 이 혼체가 욕을 좌우하고 꿈인 혼계를 좌우하여 영계까지 좌우한다. 혼체가 원인체이고 영체는 결과체이기 때문이다. 선생은 13절의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는 때인 한 때, 두 때, 반 때를 다 풀었다. 선생의 영이 나 성자와 일체 된 최고의 단계에 있었기에 풀 것이다. (20130906 혼통하여 계시 받아라 - 장정희)

㉒ 혼체와 영체의 일체원리

◇ (그렇군요. 작년 한 수요말씀에선 여기에서 더 차원 높이면 혼체가 영체와 일체, 육체에서 이탈되어 영의 몸으로 성자와 천국, 지옥 등에 견학을 간다 하셨어요. 단, 성자께서는 영체만을 데리고 다닌다 하셨죠. 여기에서 혼체가 영체와 일체 된다는 말씀과 영체만 데리고 천국, 지옥 등을 다니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혼체와 영체의 일체 원리에 대해, 그리고 일체 되었다는 말이 곧 욕이 죽었을 때 그 혼체가 영체에 흡수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랑아, 이에 대해서도 ‘나와 선생과의 관계성’을 비유로 들어 주면 되겠구나. 여기에선 ‘혼체’가 선생의 입장이고 ‘영체’가 나의 입장이다. 나와 선생은 일체 되어 한 몸이다. 그가 행하는 것이 곧 나의 행함이며 그가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와 일체 되어 욕으로 신이 된 자라고 해서 욕계를 뚫고 그 욕으로 마음껏 천국과

지옥에 견학할 수 있느냐. 육은 육계에서, 혼은 혼계에서, 영은 영계에서 활동함이다. 그렇지만 혼은 보다 영적 존재에 속해 있기에 지상영계까지는 혼체로서 갈 수 있다는 게지. 그러나 육이 죽게 되면 일어나는 혼체와 영체의 일체 관계는 육이 살아 있을 때의 일체와는 완전히 달라. 육이 살아 있을 땐 육체-혼체-영체가 각 위로 완전히 따로 존재하며 서로 일체를 이루며 존재해. 그러나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는 더 높은 급의 일체를 이루어 천국의 한 집에서 같이 산다. 전자는 마치 결혼 전 남녀가 서로 연애하는 것 같은 때야. 이때도 물론 사랑으로 일체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집에서 살며 사랑할 때만 서로 만나서 사랑한다. 그러나 후자는 이제 결혼식을 올려 더 이상 다른 집에 쪼개져서 살 필요 없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며 더 높은 급의 사랑을 이루는 것과 같아. 이 두 경우 모두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가 보다 더 높은 급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 말할 수 있겠지? 이처럼 육이 죽은 후엔 혼체와 영체가 육이 살아 있을 때 이상의 차원으로 일체를 이루어 천국의 한 집에서 살며 서로 일체 되어 사명을 하거나 혹은 각각 따로 사명을 하기도 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비하게 창조를 하셨어. (20130908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와의 관계성 - 이선진)

⑨ ‘꿈의 목적’ 따라 다양한 혼체의 모습이 보인다.

㉠ **자기의 상태, 휴거의 정도**를 보여 주기 위해 자기의 마음, 정신, 생각을 보다 많이 반영한 혼체를 꿈을 통해 보여 주는 것도 있고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 어떤 대상을 향한 자신의 심정만을 반영한 혼체를 보여 주기도 해.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 어떤 대상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심정만을 반영하여 그 대상의 혼체를 보여 주기도 하는 거야.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 대개 너희가 선생의 혼체를 보게 되었을 때는 그건 현재 선생의 마음, 정신, 생각의 상태를 그대로 다 반영한 혼체라기보다 선생의 혼체를 본 각자를 향한, 또는 섭리, 전 세계를 향한 선생의 심정만 반영된 혼체를 본 것이라 할 수 있지.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 그런데 저희가 보는 선생님의 혼체는 현재 선생님의 마음, 정신, 생각의 상태의 모든 실상이 아니라 저희 각자를 향한 선생님의 마음, 심정의 실상만 반영된 혼체인 거잖아요. 아무리 꿈에서 너희가 나를 보았다 한들 그게 神인 나 성자의 모든 마음, 정신, 생각을 다 반영한 혼체이겠느냐. 아니면 너희 각자를 향한 내 심정만 반영된 혼체이겠느냐. 이와 같이 ‘목적은 목적이다’ 처럼 각 ‘꿈의 목적’ 따라 다양한 혼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분별은 오직 깊은 기도로 깨어 있는 자만 가능해.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 그래. 너희가 선생을 위해 기도하고 평소 삶 속에 선생을 생각하며 응원해 주고 힘주면 너희 혼체가 그대로 선생에게 가 실제로 그 곁에서 위로해 주고 힘준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 주지 않거나 혹은 함부로 선생을 오해하거나 판단,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너희 혼체는 게으르게 잠만 자고 있거나 또는 실제 선생 곁에 가 선생이 하고 있는 일을 집중 못 하게 방해하고 괴롭게 한다.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⑩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 혼체가 네 욕을 다스린다.

◇ 욕이 혼체를 만들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 혼체가 네 욕을 다스린다. 마음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 ‘선택’에 있어서 네 혼체가 강하면 강한 쪽을 선택하고, 네 혼체가 약하면 욕적인 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혼체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 혼체가 완전하고 또렷하면

◇ 혼체가 완전하고 또렷하면 ㉠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고 ㉡ 정신을 나 성자의 정신으로 다스리기가 쉽다.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는 것이다. 마음을 만들어야 혼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혼체는 다시 마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혼체를 완전히 만든 영이 백 프로 완성된 영이다. 혼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밝히 이를 혼체 세계에 대해, 너희의 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기대하여라. 이는 만큼 혼체를 사용하고 쓰고 그만큼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⑪ 낮에는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생활 속에서 혼적으로 교통하다가, 밤에는 꿈에서 혼체로 만나는 것이다.

◇ 낮에는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생활 속에서 혼적으로 교통하다가, 밤에는 꿈에서 혼체로 만나는 것이다. 욕의 한계를 넘어 혼으로 만나는 사랑의 문이 열렸다. 혼을 통해 사랑을 실체적으로 느껴 보아라. 또한 각자 자신의 마음,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영의 상태를 알고, 더욱 차원 높여 행하여라. 뇌에서 일어나는 자극은 욕으로만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니, 혼 사랑은 욕적 사랑에서 받는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바로 천국식 사랑이다. 천국식 사랑은 욕적 사랑처럼 한계가 있지 않다. 남녀가 욕으로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욕의 사랑은 순간 하고 그 욕의 기쁨이 사라지지만 마음 사랑은 24시간 늘 영원히 하고, 하면 할수록 그 기쁨이 커진다. (20130706 혼체로 사랑과 소통의 문을 열어라 - 정초연)

⑫ 시대 말씀을 모르는 혼체는 힘이 없고, 형성되어도 뚜렷하지 못하다.

◇ 내 사랑아. **시대 말씀은 사람을 완성시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알고, 깨달음

으로, 영, 혼, 육을 만들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역사임을 잊지 말아라. **시대 말씀을 모르는 혼체는 힘이 없고, 형성되어도 뚜렷하지 못하다.** 그 수준, 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대 말씀이 혼을 밝히고, 너희의 혼체를 발동시키는 말씀이니 잊지 말고 자꾸 휴거 선에 혼체를 올려놓도록 하여라.**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17) 영체

① 영의 형성

㉠ **육신을 쓰고 행하는 혼은 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돕고, 영의 모습,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육신을 쓰고 행하는 혼은 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돕고, 영의 모습,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함은 영도 육이 죽은 후에 정신, 즉 영적인 혼을 100% 흡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혼이 영의 성격과 모습을 100%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 **영의 형성은 첫째 타고난 영적 성향, 둘째 육의 성향, 셋째 정신으로 인한 실천이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 **다양한 요인으로 영체가 형성되니 100% 혼체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② **선생 통아여서도 말하였듯 어느 누구든 영체를 보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 그것(=영체)의 상징화된 모습을 보거나 혹은 어떤 존재의 혼체를 보는 것이 대다수이다.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 나 성자의 영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을 반영한, 혹은 나 성자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랑, 마음, 심정 등을 반영한 상징체나 혼체를 본 것이다

◇ 그동안 나의 영체를 보았다고 생각한 섭리인들은 실상은 **나 성자의 영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을 반영한, 혹은 나 성자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랑, 마음, 심정 등을 반영한 상징체나 혼체를 본 것이다.** 이것도 ‘혼적 단계’에는 올라야 볼 수 있는 것으로 깊은 단계이다. 그렇지만 영체를 본 것은 아니니 정확히 짚고어 생각해야만 한다.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③ 혼체와 영체의 특성

㉠ 영체와 혼체는 온몸이 뇌, 즉 정신체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가 없다.

◇ 오늘 새벽에 주님과 제 영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영은 앞은 짧고 뒤는 아주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옷이 뒷부분이 엄청 긴데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하고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육은 뇌에서 지시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육의 모든 기관들이 뇌의 지시만큼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영체와 혼체는 온몸이 뇌, 즉 정신체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아. 혼체가 널 만지는 것을 느꼈지? (네.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꼭 잡는 것을 느꼈어요. 놀라서 깨 보니 아무도 없었고요.) 그것은 내 혼체가 너의 혼체를 만졌는데, 네가 혼과 육이 소통되어 육체로도 반응한 것이다. 혼체가 와서 혼을 통해 육을 만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④ 육체, 혼체, 영체의 형성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즉, 수정체가 될 때부터 육체, 혼체, 영체를 가지게 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 육체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크기의 수정체로 시작되며, 성장할 수 있는 특정 환경에서 영양분을 계속 잘 공급받으면 태아가 뚜렷이 형성되고, 태어난 이후에도 그같이 지속적인 환경 제공과 영양 공급을 받으면 온전한 성인 육체로 성장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⑤ 육체, 혼체, 영체의 성장

◇ 육체는 밥 먹고, 혼체는 마음, 생각, 정신 먹고, 영체는 혼체와 육체의 행함 먹고 크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 육체의 성장

㉠ 육체는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해, 씹어 없어질 음식물로 영양 공급받아 성장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 육체는 밥 먹어야 성장되고 유지될 수 있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 혼체의 성장

① 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 정신으로 영양 공급받아 성장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② 혼체는 마음, 생각, 정신 활동을 해야, 즉,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림
에 따라 성장되고 유지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 영체의 성장

① 영체는 육체와 혼체의 각각 행함과, 혼체의 주관을 받은 육체의 행함으로 영양 공
급받아 성장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② 영체는 혼체가 육체를 주관하여 육체가 행한 것과, 혼체가 행한 것, 즉, 마음 쓰고
생각하고 정신 차린 것으로 성장되고 유지된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 혼체가 온전히 형성되고 성장해야 영체가 그 혼체대로 형성되고 성장된다. 그러니, 열심
히 주 뜻대로 마음 쓰고,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혼체가 그 영양을 공급받아 온전히 형성된
다.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참조한 게시물

- (20121004 혼적단계와 차원 - 홍별)
- (20121005 혼체를 통해 나를 만나라 - 김형수)
- (20121218 혼체를 통해 완벽한 영체로 부활하여라 - 정빛별)
- (20121226 혼체 세계 - 윤병돈)
- (20121030 혼체, 육체, 영체로 세 겹줄이며 하나이다 - 이윤주)
- (20130519 실체적인 혼체의 형성을 깨달아라 - 주별솔)
- (20130523 혼체를 통한 나와 선생과의 소통 - 이선진)
- (20130529 선생을 혼체로 만나고, 혼체 변화되어라. 혼체가 휴거의 핵심이다. - 정별해)
- (20130606 너 사랑이란 영계 파장의 사랑이다. - 이주인)
- (20130609 육신의 행함이 보이는 혼체이며 영체다. 그 혼체의 차원이 구원의 차원이다.)
- (20130616 안 보이는 성자와 너 사랑이다. 보낸 자 통해 사랑이다. - 정별해)
- (20130705 너의 그림 - 정별해)
- (20130706 혼체로 사랑과 소통의 문을 열어라 - 정초연)
- (20130712 나 성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 혼체다. 혼체를 잡아라 - 정아빛)
- (20130713 휴거의 때, 혼체를 사용하라 - 정형호)
- (20130723 월명동에서 나 선생을 만나자 - 주은혜)
- (20130724 마음, 생각의 선택과 결과 - 정별해)
- (20130727 마음을 만드는 자가 되어라 - 주은혜)
- (20130730 200선에 오른 혼체, 100선, 200선, 300선 혼체의 모습 - 주은혜)
- (20130808 너에 기록된 이미지, 트라우마 - 정별해)
- (20130810 99%는 개통 불가, 먹통이다. - 주소유)
- (20130816 너를 최대로 써라 - 황인선)
- (20130818 혼체와 마음·생각·정신과의 관계 - 신호경)
- (20130822 정신체 곧 혼체 - 주은혜)
- (20130905 너 완성, 통합 속에 휴거다. - 정형호)
- (20130906 혼통하여 계시 받아라 - 장정희)
- (20130908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와의 관계성 - 이선진)
- (20130909 선생님 혼체와 더 잘 통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 - 정별해)
- (20131008 자기 혼체를 보는 법 - 주은혜)